태허정 최항선생 사료집

훈민정음 창제 반포 560년 기념



태허정 최항선생 유허비와석상 추모식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삭시마을 2005년10월9일

2006.10
김 포 문 화 원



최항(崔恒) 선생 존영



최항(崔恒) 선생묘(墓) : 경기도 기념물 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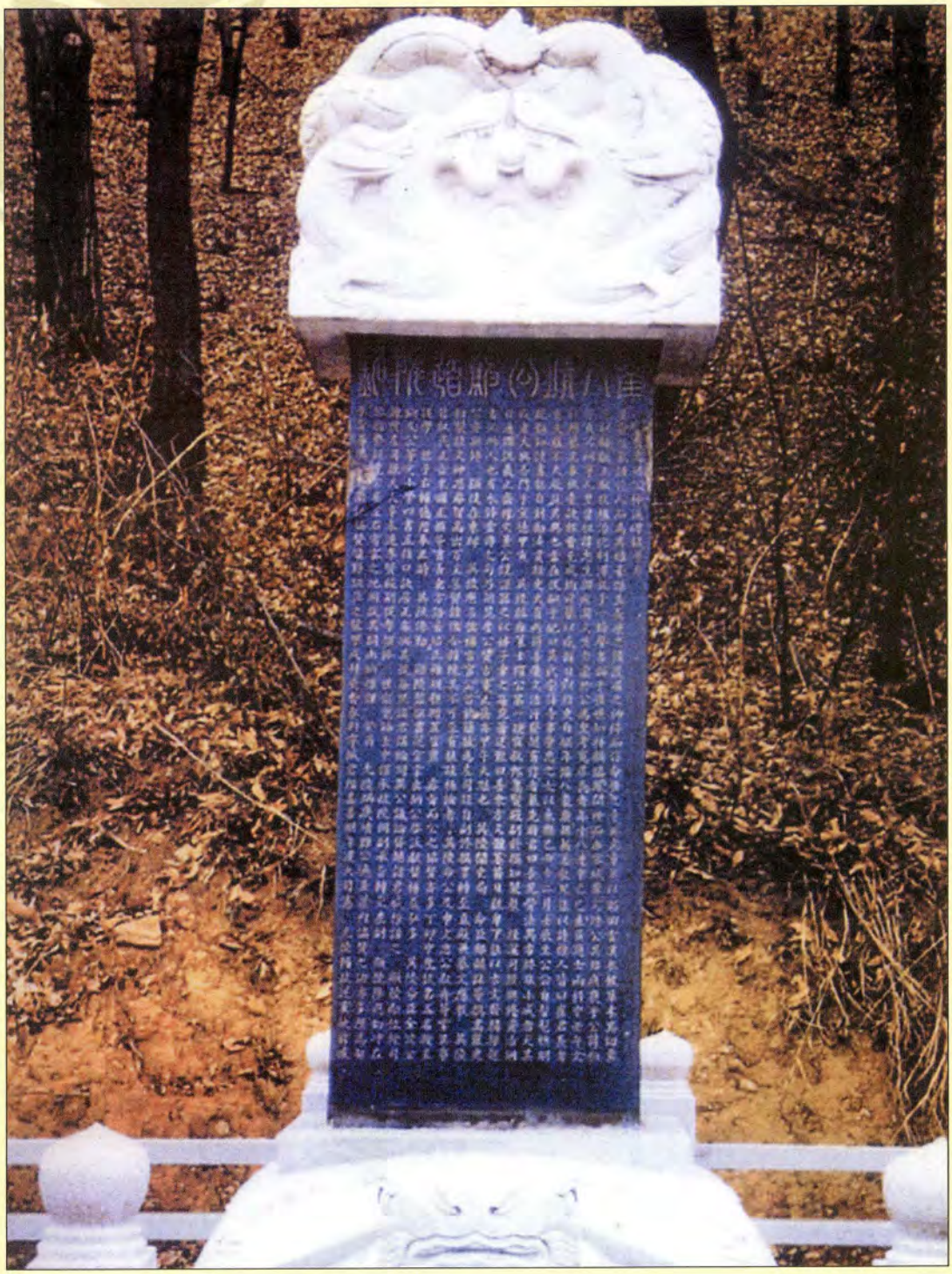
문화재 표지판



최항(崔恒) 선생묘비



최항(崔恒) 선생묘갈



신도비(神道碑)



태허정 최항선생 유허비와석상 추모식



최항(崔恒)선생사당 (祠堂)



재실(영모재:永募齋)

집현전 학사도



세종대왕 기념 업회 제공

목 차

1 ..... 최항선생존영
2 ..... 최항선생묘
3 ..... 최항선생 묘비와 묘갈
4 ..... 신도비
5 ..... 유허비와 석상
6 ..... 최항선생 사당및 재실
7 ..... 집현전 학사도
9 ..... 전시책자명
10 ..... 전시작품명
11 ..... 인사말씀
12 ..... 축사
21 ..... 태허정 최항선생의 유허비문
25 ..... 좌우명
26 ..... 최항선생의 친필
27 ..... 훈민정음 창제 집현전 팔학사
29 ..... 훈민정음 예의편 반포문
30 ..... 훈민정음 예의편
34 ..... 태허정 최항선생과 삭시의 유래
37 ..... 교서
39 ..... 단종실록
41 ..... 공문서
45 ..... 노거수 답사 조사결과
47 ..... 계이자시
48 ..... 훈민정음 제임 특선시
50 ..... 문정공 최항선생의 가계
52 ..... 최항선생의 약사
53 ..... 최항선생의 연보
60 ..... 최항선생의 인품과 효행및 선비정신
66 ..... 훈민정음 창제와 최항선생
68 ..... 최항선생의 생애와 주요업적
73 ..... 최항선생의 저술 일람표
76 ..... 세종대왕과 황룡현몽
77 ..... 세종대왕과 최항선생
80 ..... 최항선생과 병자사화
81 ..... 최문정공 비명 병서
88 ..... 태허정 묘지문
93 ..... 태허정집 서문

전시 책자명

1	훈민정음
2	동국정운
3	태허정 문집
4	삭녕최씨 대동보(족보)
5	태허정문집 번역
6	태허정 최항선생의 학문적 업적에 관한 연구
7	태허정 최항선생의 생애와 학문
8	한글 자체 전시전
9	2004년 10월 이달의 문화인물
10	태허정 최항선생 유허비 및 석상 건립기
11	태허정 공종가 12 순성명랑경제 홍화좌리 공신 회맹문
13	태허정 최항선생 학술연구 발표회
14	훈민정음과 최항선생
15	수충위사동덕 좌익공신 회맹록:오공신 회맹축
16	순성명량 경제홍화라리공신 회맹록:8공신 회맹문
17	조선 건국대왕 이성계:태조대왕 어필
18	조선국 4대왕 이도:세종대왕 어필
19	조선국 5대왕 이향:문종대왕 어필
20	조선국 7대왕 이유:세조대왕 어필
21	조선국 9대왕 이혈:성종대왕 어필
22	태허정 최항선생:계이자 시
23	태허정공 존영과 묘소 사당 신도비
24	2004년 10월 문화인물 선정:문화관광부 포스터
25	2006년 훈민정음창제반포 560년:김포문화원 포스터
26	역대 구계 왕세보:단군~조선
27	한글자체 변천사:서기1450년~1500년
28	세종실록 편찬명:찬수관 명단
29	경기도 삭녕군 지도:고종9년 서기1872년
30	태허정 최항선생:존영
31	태허정 최항선생:신도비탁본 병풍
32	인어천지원 목각:서각
33	좌우명 목각:서각
34	훈민정음 액자:최병권, 서
35	도원도 30운 액자:최강현, 번역
36	태허정 최항선생 유허비전경:사진 액자외 다수점

전시 작품명

1	태허정 최항선생, 수결, 낙관
2	태허정 최항선생, 좌우명
3	태허정 최항선생, 친필, 인어천지원
4	현동자, 안견선생, 몽유도원도
5	태허정 최항선생, 도원도30운
6	훈민정음, 례의편, 초성17자 중성11자
7	훈민정음, 해례편, 제자해
8	훈민정음, 해례편,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9	훈민정음 해례편, 합자해, 용자례
10	훈민정음 언해:세종어제 훈민정음
11	태허정 최항선생:태허정공 문집 서문
12	태허정 최항선생:태허정공 비명
13	태허정 최항선생:태허정공 묘지명
14	만, 최문정공, 태허정:문정공, 괴애, 김수온, 찬

인 사 말 씀

최항 선생 인사말



김포문화원장 조 한 승

최항선생의 묘비제막와 이와 관련된 책자가 문중의 수고로 발간된데 이어 문헌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김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김포시 양촌면에서 출생하시어 세종 15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셨고, 또한 집현전 부수찬으로 정인지, 박팽년등과 훈민정음 창제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관음현상기」, 「경국대전」, 「역학계몽요해」 를집필하셨을 뿐만아니라 세종 26년 (1444) 집현전 교리로서 「용비어천가」를 지어올렸고, 「훈민정음 해례」 를 찬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종 2년(1471)에는 좌리공신 1등에 책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조선초기의 대학자로 문물정비에 크게 공헌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높은 벼슬을 40년간 지내면서도 한번도 탄핵을 받지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선비이였으며 대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후손들이 선생의 공덕을 기리고자 묘비제막과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문헌전시회를 개최함으로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업적에 관한 문헌전시회를 여는 것은 김포시민에게는 대단한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 줄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선인의 생생한 면모를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 전승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문헌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문중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중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9

김포문화원장 조한승

축 사

太虛亭 崔恒 선생을 오롯이 세우기 위하여



가톨릭대 敎授 李 河 俊

太虛亭 崔恒 선생!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삭시 태생으로 世宗大王의 特志를 받아 한글창제를 主導한 太虛亭 崔恒 선생. 集賢殿 선임학사로 〈東國正韻〉, 〈經國大典〉, 〈龍飛御天歌〉 등을 비롯해 40여종의 저술을 주도한 太虛亭 崔恒 선생. 父親喪을 당해 侍墓살이 하던 중 世祖의 官職 復歸 命令을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朝廷의 紀綱도 지킬 수 있다"며 세 차례나 부름을 거절한 孝의 表象 太虛亭 崔恒 선생. 領議政의 영광 속에서도 淸白吏의 表象으로 더욱 推仰받는 朝鮮王朝 最古의 先非, 太虛亭 崔恒 선생.

地域自治時代, 地域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唯一한 方案은 콘텐츠다. 오랜 역사 속에서 蓄積된 多樣한 文化的 財富는 멀티미디어시대이자 정보화시대인 현재 가장 유력한 밑천으로 그 有用性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는 참으로 행복한 고장이다. 天惠의 콘텐츠 資源이 無窮無盡하기 때문이다. 다른 고장처럼 위인의 出生과 成長과 逝去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불경스러운 사태를 보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地域住民들이 無限한 자긍심에 充滿하여 새로운 典範을 創出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選擇받은 지역인 것이다.

太虛亭 崔恒 선생은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의 큰 자랑이자 얼이다. 선생은 偉大한 學者로 滅私奉公의 大業을 이루었으며 孝의 실천적 화신으로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김포의 歷史에 대한 우리 自矜心의 원천은 바로 이 지점이다. 太虛亭 선생을 顯揚하고 繼承하는 것,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後代에게 대물림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작은 實踐에서 시작해야 하겠다.

선생의 遺物을 展示하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疎疎한 일일 수 있다. 다른 地域 혹은 한글 關聯 團體에서 오히려 선생님을 오늘에 모셔 되새기는 사업이 한창이다. 선생님의 魂이 깃든 이 김포에서 선생님을 자주 만나 뵈올 수 없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太虛亭路도 太虛亭 地域도 없다. 심지어 太虛亭을 뵈러가는 길에 그 흔한 里程標도 없다. 김포 어디서에서도 선생의 痕迹을 찾을 수 있는 空間은 흔치 않다.

地域의 自負心은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쉰다. 지역의 역사를 先占하려고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김포의 얼들을 대할 것인가. 선생의 偉大한 業績에 비추면 한없이 초라하고 不敬스러운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한발씩 늦는다는 점이다. 더 늦어 볼썽사나운 안타까운 일을 범하지 않게 마음을 다시 다져야 한다. 뼈를 깎는 覺性의 시간을 前提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첫발을 힘차게 내딛어야 할 것이다.

끝끝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영원한 스승 太虛亭 崔恒 선생을 곁에 두고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런 삶을 지속하고 우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일은 선생을 다시 우리 앞에 오롯이 모셔오는 事業이다. 선생의 遺品을 한점 한점을 정성스런 시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아보며 선생의 意味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을 '眞天才' 이자 '儒雄' 이신 太虛亭 崔恒이 마침내 우리 곁에서 넉넉한 웃음으로 자리하실 수 있도록 孤軍奮鬪의 起點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톨릭대 敎授 李 河 俊

축 사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 선생의 기록전시회에 붙여



문학 박사 金 淇 烈

최항(崔恒) 선생의 자(字)는 정보(貞夫),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梁), 군호(君號)는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조선 태종 9년(1409) 12월 임진일에 옛 삭녕군(朔寧郡) 마장면(馬場面) 대전리(大田里) 괴은촌(槐隱村) 구기(舊基)에서 4남 중 막내로 출생, 아버님은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증(贈) 영의정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 휘(諱) 사유(士柔)공이요, 어머님은 정경부인(貞敬夫人) 해주(海州) 오씨(吳氏)이다.

선생은 26세 때인 세종 16년(1434)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왕명에 의해 당일로 선교랑(宣敎郎)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어 훈민정음(訓民正音)(한글) 창제에 참여하였다. 37세 때인 세종 27년(1445)에 집현전 응교(應敎)에 진급되고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를 찬술(撰述)하였다. 38세 때인 세종 28년(1446)에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頒布)하였다.

여기에 훈민정음 반포가 이루어진 날인 세종 28년 9월 29일(음력)자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예조 판서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 어디를 가더라도

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 "

라고 하였다.

이렇듯 선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인 훈민정음과 그 해설에 참가하였으니, 선생의 첫 번째 업적이라 할 것이다.

다음 해 세종 29년(1447)에 한글 창제 후 처음 써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발문(跋文)을 지었다. 43세 때인 문종 1년(1451)에 사간원(司諫院)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가 되고, 자치강목(資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 등을 편찬(編纂)하였다. 44세 때인 단종 즉위년(1452)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45세 때인 단종 1년(1453)에 승정원 도승지(都承旨)에 올라 계유정란(癸酉靖亂)에 협찬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훈(策勳)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정난에 공효(功效)가 없었다며 공신의 호를 삭제하여 줄 것을 주청하였다. 46세 때인 단종 2년(1454)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제수되고 영성군(寧城君)에 책봉(册封)되었다. 47세 때인 단종 3년(1455)에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우부빈객(右副賓客)을 겸임하였으나, 이해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위하여 모든 관직을 휴직하였다. 49세 때인 세조 3년(1457)에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전임(轉任)되었다가 다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명되었다. 50세 때인 세조 5년(1458)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오르고, 이해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다음해에 부친상으로 휴직 중인 선생에게 관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명이 자식된 도리는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는 일로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내용의 글을 3회에 걸쳐 상소하였다. 그러나, 이해에 공조판서에 임명되고 왕명으로 관직에 복귀하여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과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였다. 53세 때인 세조 7년(1461)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고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 선생이 지은 잠서(蠶書)를 한글로 번역한 잠서언해(蠶書諺解)를 간행(刊行)하였다. 54세 때인 세조 8년(1462)에 다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고 양성지, 서거정(徐居正) 선생과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수(撰修)하였다. 55세 때인 세조 9년(1463)에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이 되어 병서신주(兵書新註)를 교정(校正)하고, 신숙주(申叔舟)와 더불어 어제유장설(御製諭將說) 3편을 주해(註解)하였다. 56세 때인 세조 10년(1464)에 의정부 좌참찬

(左參贊)에 전임(轉任)되었다. 다음 해에 좌참찬에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임(兼任)하였다. 58세 때인 세조 12년(1466)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자 군사 관계는 적임이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59세 때인 세조 13년(1467)에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우의정(右議政), 좌의정(左議政), 영의정(領議政)에 제수(除授)되었다. 60세 때인 예종 즉위년(1468)에 오랫동안 편찬에 참여하였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었다. 61세 때인 성종 즉위년(1469)에 경국육전(經國六典)을 편찬하여 왕께 올리고 교서(敎書)를 찬술하였으며,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임하였다. 62세 때인 성종 1년(1470)에 영성부원군에 진봉(進封)되고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63세 때인 성종 2년(1471)에 좌의정에 재임(再任)되고, 다음 해엔 좌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재직(在職)하였다. 66세 때인 성종 5년(1474)에 또 다시 좌의정에 복배(復拜)되었다가 4월 28일 향년 66세로 졸(卒)하니, 조정에서 조회(朝會)를 철회하고, 경기도(京畿道) 광주시(廣州市) 퇴촌면(退村面) 도마리(道馬里) 손좌(巽坐)에 예장(禮葬)하였다. 배위(配位)는 정경부인 달성(達城) 서씨(徐氏),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의 외손녀로 재예와 식견이 특출하여 여장부라 호칭하였다. 향년 80세에 졸하니, 묘는 광주 문정공묘 북쪽 임좌(壬坐)이다. 슬하(膝下)에 2남과 4녀를 두었으며, 자손이 번창하여 경상고관(卿相高官)과 도학 문장이며 구국절의(救國節義) 명사들과 조선 후기에는 유명한 실학자(實學者)가 배출되어 역사(歷史)와 가문(家門)을 빛내었으니, 선생의 위업(偉業)을 계승한 것이다.

선생은 세종 16년(1434) 26세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으로 특수(特授)된 후 세종 32년(1450)까지 16년간 집현전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훈민정음 창제에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40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동방어음(東方語音), 동국정운(東國正韻), 잠서언해(蠶書諺解) 등을 찬술(撰述)하고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 구결(口訣)을 정하며, 자치강목(資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 등을 찬수(撰修)하고, 동국통감(東國通鑑), 경국대전(經國大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공신연곡(功臣宴曲) 등을 찬진(撰進)하는 등 각 방면에 걸친 서적을 비롯하여 태허정문집 외 40여권의 서책을 찬술한 당대의 대학자였다. 선생의 문장은 탁출(卓出)하여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아 웅문대책(雄文大册)이 거의 선생의 손에 이루어졌으니, 2권의 태허정문집(太虛亭文集)에는 어제서(御製序), 경서발(經署跋), 왕지서(王旨書), 국서표문(國書表文), 전문(箋文), 고문전책(高文典册)의 진전문(進箋文), 임금과 왕실의 만장(挽章), 비명(碑銘),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생은 시문(詩文)에도 능하여 태허정시집((太虛亭詩集)에는 200여 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악장가사(樂章歌詞)까지도 작사(作詞)하였고, 병려문(駢儷文)에 정통하는 등 문장의 재예(才藝)가 뛰어나기에 임금은 선생을 가리켜 "진천재(眞天才)", "유웅(儒雄)"이라고 극찬(極讚)하였다.

선생은 부친의 거상(居喪) 시묘(侍墓)살이 중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왕명에도 도리와 기강을 내세워 불응하는 등 유학자로서의 선생의 학행(學行)은 지행일치(知行一致)의 표상(表象)이 되었다. 이렇게 선생은 덕행(德行)이 높으면서 박학다식(博學多識)하며 천품(天稟)이 어질고 겸손(謙遜)하여 항상 몸가짐을 공손(恭遜)히 하고 말이 적었으며 언제나 신중(愼重)하여 삼사일언(三思一言) 삼사일행(三思一行)을 경국처세(經國處世)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삼았다.

옛 고을 경기도(京畿道) 통진현(通津縣) 대파면(大坡面) 학운산(學雲山) 아래 삭시리(朔是里), 현(現) 경기도(京畿道) 김포시(金浦市) 양촌면(陽村面) 학운리(學雲里) 삭시(朔是)는 삭녕(朔寧) 최씨(崔氏)가 터를 개척한 지명이다. 최항 선생은 이곳에 태허정(太虛亭)이란 정자를 짓고 스스로 호를 태허정(太虛亭)이라 하였다. 이곳은 처남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선생과, 이웃 대포리(大浦里)에 목안정(木雁亭)이란 정자를 짓고 일가와 함께 사는 눌재 양성지(訥齋 梁誠之) 선생이 이곳에서 교유(交遊)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鶴) 같은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학운리(學雲里)라, 글 읽는 소리 드높아 고음(高音)달(地)이라 전해지면서 현인군자(賢人君子)들이 찾아든 경치 좋은 해안의 명소가 되었다.

이곳 삭시 마을에 우거(寓居)하면서 태허정에 편액(扁額)하고 눌재 선생과 사가정 선생 같은 명류(名流)들과 교환(交驩)하며 시서(詩書)를 강론하고 국사를 논의하며, 중형(仲兄) 이조참판 반송당(伴松堂) 형(衡)공과 친질(親姪) 참의(參議) 영주(永澍)공과 서로 이웃하고 서로 망견(望見)하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하던 선비 마을이라 그 명성(名聲)이 자자하였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손을 씻고 갈매기 가무(歌舞)에 즉흥시를 읊던 선생이 이곳에서 쓴 태허정계자시(戒子詩)는 천추후손(千秋後孫)에게 하는 당부 말씀으로 남아 있다. 이 명소의 나무는 세월과 더불어 거목이 되어 푸르고 깊은 우물의 맑은 물은 항상 무진(恒常無盡)하며 이름난 선비들의 운집(雲集)함은 도덕과 학문의 명성(名聲)이 되었고, 집안의 화목과 형제간에 우애함은 두루 모범이 되었으니, 그 자취마저 없을 수 없어 선화(仙化)한 옛 터전, 경치 좋은 이 유허지(遺墟地)엔 기와 조각이 보였다.

이 유서 깊은 선비 마을에 김포(金浦) 시민을 대신하여 김포문화원의 이름으로 559주년 한글날에 즈음하여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遺墟碑)와 함께 선생의 석상(石像)을 세웠으니, 나라 일에 성심(誠心)을 다하면서 한글 창제를 도왔으며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긴 고명(高名)한 분의 유적(遺蹟)이 우리 김포에 있었다는 사실(史實)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560주년 한글날에 선생의 생애에 관한 기록물의 전시회를 우리 김포문화원의 주관으로 열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없다. 다시 한 번 선생의 생애(生涯)와 업적(業績)에 대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필자는 유허비와 석상의 건립을 위하여 구슬땀을 쏟으며 터를 닦고 공사에 열중하는 후손 능행(能行)씨의 모습에서 후손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의 본보기를 감격하면서 보았는데, 금년에도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김포시 풍년마을 우거(寓居)에서
문학박사 金淇烈

최항 선생 축사



태허정 최항선생 기념사업회장
최 인 영

2004년도 정부에서 10월의 문화의 인물로 선정됐던 문정공태허정 최항선생은 조선조 초기에 대학자이시고 당시 집현전 선임학자로 한글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인물로 그업적을 추모하기위하여 금년도 10월9일 한글날을 택하여 김포문화원 주최로 태허정 최항선생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한민족의 참글을 갖지못하고 어쩔수 없이 어려운 한문을 거의 천오백년 동안 써오다가 조선왕조의 세종임금대에 이르러 비로서 훈민정음(한글)을 만들어 민족자존의 국혼을 확립하고 민본의 다스림을 이루고사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반들은 백성들에게 쉽고 편한 한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나날이 한글을 쓰므로서 우리의 참글을 갈고 닦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말과 한자의 표준음이 정리되고 한글로 유교서적들이 번역되어 교육에 이바지 하였으며,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불교계는 속속들이 한글경전을 만들고 여성들은 이야기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등 진정으로 우리글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민초들의 몫이 되었던 농사에서부터 점술등에 이르기까지 생업에 관련된 서적들이 한글로 보급되었으며 왕실에서도 한글을 쓰고 선비와 여성등도 시조와 수필과 일기에 한글로 거리낌없이 써왔습니다.

또한 개화기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거의 한글로 전파되고 신교육과 문학활동이 또한 한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강점하에서도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한글을 지켜낸 덕분으로 우리는 한글을 줄곧 사용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것도 사실은 한글이 국가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전시회가 태허정 최항선생의 훈민정음(한글)창제의 업적을 추모하고 자랑스러운 당시의 공로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전시회를 개최해주신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손 최능행 선생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외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6.10.9

태허정최항선생기념사업회장최인영

축 사

최항 선생 축사

사정공파 최 성 락

한글창제와 문화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최항선생은 단종2년 계유년 1453.10.10 계유정란의 공으로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1등에 책훈 되서어 단종 3년 1454.1.24 수충위사 협찬정난공신, 가선대부, 이조참판, 집현전 제학 ,동지결연 춘추관사 영성군 최항에게 하교하기를 공훈을 책정하여1등을 삼고 그부모와 아내에게 슬을 주고 사유가 영원히 후대에게 미치게 한다하여 전지200결 노비25구 안구마1필 백은50량 표피1단을 하사하이었다. 그때받은 사례지지가 서쪽에 바다물과 학운산이 마주치는 경치좋은 경기도 통진부 대파면 일대지역이다.
최항선생께서는 삭령에 사시는 형남이신 참판공 휘형의 아들 참의공 휘영주에게 통진에와 전치를 관리하며 살라 하시고 최항 선생은 집파정자(태허정)을 지었다.
참판공께서는 병자사화 때 나는 귀먹었다 핑계하며 관직에서 은퇴하고 교향(삭령)으로 낙향 하여 계시다 아들이 살고있는 통진으로가 동생(최항)곁에서 함께 살면서 동생을 불러 조정 소식을 전해 듣곤 하였다.
서울집은 큰아드님이신 석포공 휘영린에게 맡기시고 통진으로 내려와 사시면서 처남이신 서거정 선생과 양성지 선생등 당대의 학자 선비들과 교분을 두터히 하시었다.
뒤날에는 큰아드님의 세째아드님이신 사정공학수걸과 함께 살으셨다.
통진에 팜판공의 후손과 사정공의 종손을 비롯하여 많은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양촌명 학운리에는 예정자(태허정)터와 당시 심었다는 노거수와 샘터가 있다.
사정공과에서는 예정자터에 정자를 복원하고 선조를 추망코저 태허정 유적지 보존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원들의 협조를 받아 사업착수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한계가 있어 1차 사업으로 2005.10.9 최항선생의 존상과 유허비를 건립 준공 하였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주변정리도 미흡한 상태에서 김포시와 지방 유지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시어 김포시에서 사신문화인물의 유적기를 보호해주이고 미힙한 부분을 보완하며 기념을을 정하여 일정한 년례행사를 지른다면 더 바램이 없겠다.

2006.9
사정공파종중 최성락

1.태허정 최항(崔恒) 선생의 유허 비문

해동군자국(海東君子國)에 하늘이 명현을 내려보내신 것은 반드시 큰 뜻이 있음이다. 옛 고을 경기도(京畿道) 통진부(通津府) 대파면(大破面) 학운산(鶴雲山) 아래 삭시리(朔是里) 현(現) 경기도(京畿道) 김포시(金浦市) 양촌면(陽村面) 학운리(鶴雲里) 삭시(朔是)는 삭녕(朔寧)최씨(崔氏)가 터를 개척한 지명이다. 최항(崔恒)선생은 이곳에 태허정(太虛亭)이란 정자를 짓고 스스로 호를 태허정(太虛亭)이라 하셨다. 처남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선생과 이웃 대포리(大浦里)에 목안정(木雁亭)을 짓고 사시는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선생이 이곳에서 교유(交遊)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 같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학운리(鶴雲里)라 글 읽는 소리 드높아 고음(高音) 달(地)이라 전해지면서 현인군자(賢人君子)들이 찾아든 경치 좋은 해안의 명소였다. 최항(崔恒)선생의 자(字)는 정보(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조선 태종 9년(一四0九年)十二月 임진일에 옛 삭녕군(朔寧郡) 마장면(馬場面) 대전리(大田里) 괴음촌(槐陰村) 구기(舊基)에서 사남중 막내로 출생하셨다. 아버님은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증(贈) 영의정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 휘(諱) 사유(士柔)공이요 어머님은 판종부시사(判宗簿侍事) 혁충(奕忠)의 따님으로 정경부인(貞敬夫人) 해주(海州) 오씨(吳氏)이다. 선생은 학문과 덕행이 탁출(卓出)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품(天稟)이 어질고 겸공(謙恭)하며 항상 몸가짐을 공손히 하시어 비록 한 더위라도 의관을 정제(整齊)하고 온 종일 여의에 벗어난 용모를 보이는 일이 없으셨다.

세번 생각하여 한번 말하고 세번 생각하여 한번 행함(三思一言 三思一行)을 경국처세(經國處世)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독서에 탐닉(耽溺)하시는 등 게으른 모습이 없으셨다. 세종 十六年(一四三四年) 二十六세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으로 특수(特授)되신 후 세종 三十二年(一四五0 年)까지 十六年간 집현전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시고 훈민정음 창제에 중심 역할을 하셨으며 동방어음(東方語音) 동국정운(東國正韻) 잠서언해(蠶書諺解)등을 찬술(撰述)하시고 소학 사서오경 구결(口訣)을 정하시며 자치강목(資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등을 찬수(撰修)하시고 동국통감(東國通鑑) 경국대전(經國大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공신연곡(功臣宴曲)등을 찬진(撰進)하시는 등 각방면에 걸친 서적 등 태허정문집 외 四十여권의 서책을 찬술하신 당대의 대학자였고 문장이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아 고문대책(高文大冊)이 거의 선생의 손에 이루어졌다. 사가정 선생이 이르기를 문장이 천분(天分)으로 지극히 높고 학력(學力)이 극치에 달하여 뜻에 맞게 글을 쓰면 호탕하기가 장풍(長風)에 돛단배가 순류(順流)하는 것 같고 준마(駿馬)가 구름위로 승천하는 기상이라고 하셨다. 선생의 작문(作文)은 정수(精粹)하고 탁월하여 소동파(蘇東坡)와 황산곡(黃山谷) 두 선생에게 뒤지지 않으며 소자첨(蘇子瞻) 구양수(歐陽修)와 백중지간이라 하였으며 도덕과 문장이 세상의 사표(師表)가 되었으며 국초의 四대문호중 일인이라 일컬었다. 관직은 집현전 수찬 응교 승정원 도승지 이조참판 형조판서 공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대제학을 하시고 세 번 공신으로 책훈되셨으며 세종부터 성종까지 입조(入朝) 四十年에 탄핵을 받

지 않으셨다.

이곳 삭시 마을에 우거(寓居)하시면서 태허정에 편액(扁額)하고 눌재 선생과 사거정 선생 같은 명류들과 교관 하며 시서(詩書)를 강론하고 국사를 논의하며 중형(仲兄) 이조참판 반송당(伴松堂) 형(衡)공과 친질(親姪) 참의(參議) 영주(永澍)공과 서로 이웃하고 서로 망견(望見)하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하던 선비 마을이라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손을 씻고 갈매기 가무(歌舞)에 즉흥시를 읊던 이곳에 쓰신 태허정 계자시(戒子詩)는 천추후손(千秋後孫)에게 하는 당부 말씀으로 남아 있다. 심은 나무는 거목되어 푸르고 깊은 우물의 맑은 꿈은 항상무진(恒常無盡)하며 이름난 선비들의 운집(雲集)함는 도덕과 학문의 명성(名聲)이 되었고 집안의 화목과 형제간에 우애함은 두루 모범이 되었으니 그 자취마저 없을 수 없어 선화(仙化)한 옛 터전 경치 좋은 이 유허지(遺墟地)엔 기와 조각이 보였다. 선생은 성종 五年(一四七四年)四月 二十八日 향년 六十六세로 졸하니 조정에서 조회(朝會)를 철회하고 경기도(京畿道) 광주시(廣州市) 퇴촌면(退村面) 도마리(道馬里) 손좌(巽坐)에 예장(禮葬)하였다. 배위(配位)는 정경부인 달성(達城) 서씨(徐氏) 달천부원군(達川府院君) 미성(彌性)의 따님이며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의 외손여로 재예와 식견이 특출하여 여장부라 호칭하였다. 향년 八十세에 졸하니 묘는 광주 문정공묘 북강(北岡) 임좌(壬坐)이다. 二남과 四녀를 두었으며 자손이 번창하여 경상고관(卿相高官)과 도학 문장이며 구국절의(救國節義)명사들이 배출되어 역사와 가문을 빛내었으니 선생의 위업을 계승한 것이다. 선생이 선화한지 五百三十一年 지금는 많은 세월이 흘러 지형도 바뀌어 유적이 산실

(散失)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지정 二00四年 "十月의 문화 인물 "로 선정되어 각종 문화 행사로 공덕을 추모하고 태허정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만세불망(萬世不忘)의 장정표(長程標)를 수립하였다. 이 유허비(遺墟碑)와 석상(石像) 건립을 계기로 선생의 행적과 공명(功名)은 당당하여 세상만인이 함께 감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공적이 천추만세 머릿속에 기리 남을 것이며 국가 발전의 금자탑이 될 것이다. 우리 김포 지역민을 대신하여 김포문화원의 이름으로 이 유허비를 한글날에 세우니 길이 기념될 것이며 선생의 명성과 업적이 청사(靑史)에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西紀 二00五年 十月 九日

김포시 문화원

좌 座 우 右 명 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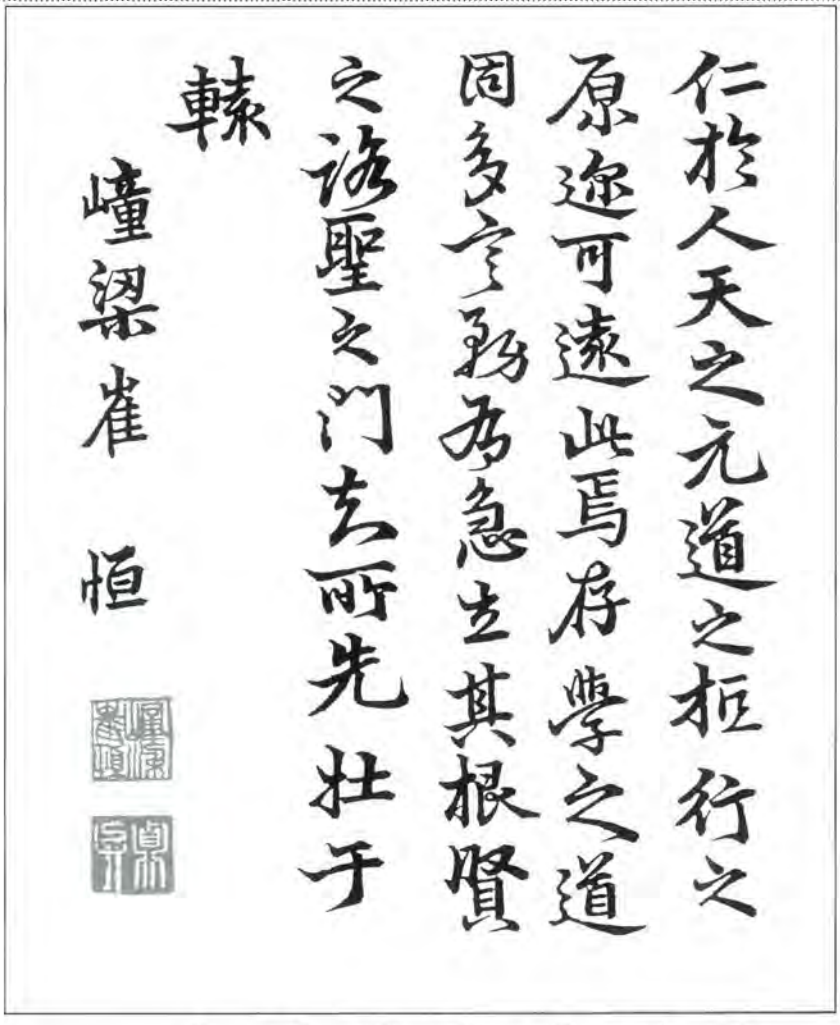
삼 三 사 思 일 一 언 言

삼 三 사 思 일 一 행 行

태허정 최 항(太虛亭 崔恒)

《座 右 銘》

三思一言<세번(거듭) 생각한 후 한마디 말을>
三思一行<세번 (거듭) 생각한 후 행동하라>



仁於人天之元 어진사람에 있어서는 하늘이 으뜸이요 본바탕이 되고

道之扼行之原 도가 중추의 손이 되며 행실에 근원이 된다.

逾可遠此焉存 가하온 가운데 있는데 멀리하고 있고 이는 어느 곳에라도 있다.

學之道固多言 배움의 도(탄은의 도)라는 것은 많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務為急立其根 힘쓰고 엄정하게 하여 그 근원을 세우고

賢之於聖之門 어진사람의 지혜라는 것과 성인의 신에 들어서는 문은

知所先壯于輗 선후에 하는 일을 알고 튼튼하게 이끌어 나아갈 것이다.

領議政大提學 崔恒

〈아 래〉

⊙ 〈훈민정음 창제 집현전 8학사〉 (반포일 기준)

① 정인지 〔(鄭麟趾, 집현전대제학,집현전 대표, 51세)〕
② 최 항 〔崔 恒, 집현전 응 교(정4품, 38세)〕
③ 박팽년 〔朴彭年, 집현전 부교리(종5품, 30세)〕
④ 신숙주 〔申叔舟, 집현전 부교리(종5품, 30세)〕
⑤ 성삼문 〔成三問, 집현전 수 찬(정6품, 29세)〕
⑥ 강희안 〔姜希顔, 돈녕부 주 부(정6품, 30세)〕
⑦ 이 개 〔李 塏, 행집현전 부수찬(종6품,30세)〕
⑧ 이선로 〔李善老, 행집현전 부수찬(종6품), 미상)〕

⊙ 동국정운 편찬 참여 학자(9명)

① 최 항 (守 집현전 직제학)
② 성삼문 (守直 집현전)
③ 박팽년 (守直 집현전)
④ 신숙주 (守 집현전응교)
⑤ 이 개 (守 집현전교리)
⑥ 강희안 (守 이조정랑)
⑦ 이현로 (守 병조정랑)
⑧ 조변안 (守 승문원교리)
⑨ 김 증 (승문원부교리)

6.訓民正音創制 集賢殿 八學士 年表(훈민정음창제 집현전 팔학사 연표)

[훈민정음 반포시까지 : 음력 기준]

八學士 年度	鄭麟趾 정인지	崔 恒 최 항	朴彭年 박팽년	申叔舟 신숙주	成三問 성삼문	姜希顔 강희안	李 塏 이 개	李善老 이선로
1435	이조참판 예문관제학 <39세>	알성문과 장원,집현전 부수찬 제수<26세>	알성문과 급제 <18세>	<18세>	<17세>	<18세>	<18세>	?
1435	중정도 관찰사 [종2품]	집현전 부수찬 [종6품]	집현전 정자 [정9품]					
1436	중정도 관찰사	집현전 수찬 [정6품]	집현전 정자				사마시 합격 <20세>	
1437 세종 19	예문관 제학 [종2품]	집현전 수찬	집현전 정자					
1438 세종20	예문관 제학	집현전 수찬	사가독서 (삼각산 진관사)	진사급제 (진장) <22세>	식년문과 급제 <21세>			식년문과 급제
1439 세종 21	집현전 제학 형조참판	집현전 수찬	집현전 부수찬 [종6품]	문과급제 전농직장 <23세>				
1440 세종22	형조판서 [정2품]	집현전 수찬	집현전 부수찬	전농직장				
1441 세종23	지중추 원사 [정2품]	집현전 부교리 [종5품]	집현전 부수찬	주자별좌 집현전 부수찬		식년문과 급제 <25세>	집현전 저작랑 [정8품]	
1442 세종24	예문관 대제학 [정2품]	집현전 부교리	집현전 부수찬	군기시 주부 훈련원 주부 [종6품]	사가독서 <25세>		집현전 저작랑	
1443 세종25 正音完成	전제상정소 제조 <48세>	집현전 부교리 <35세>	집현전 부수찬 <27세>	오위사직 <27세>	<26세>	<27세>	집현전 박사 [정7품] <27세>	
1444 세종26	예문관 대제학 [정2품]	집현전 교리 [정5품]	집현전 부교리 [종5품]	집현전 부수찬 [종6품]		돈녕부 주부 [정6품]	집현전 부수찬 [종6품]	집현전 수찬 [정6품]
1445 세종27	의정부 우참찬	집현전 응교	집현전 부교리	집현전 부수찬	성균관 주부	돈녕부 주부	집현전 부수찬	예조좌랑 [정6품]
1446 세종28 正音頒布	집현전 대제학 [정2품]	집현전 응교 [정4품]	집현전 부교리 [종5품]	집현전 부교리 [종5품]	집현전 수찬 [정6품]	돈녕부 주부 [정6품]	(행)집현전 부수찬 [종6품]	(행)집현전 부수찬 [종6품]

훈 민 정 음 예 의 편 반 포 문

1. 訓民正音〔例義篇：頒布文〕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ㄱ. 牙音 : 如君字初發聲
　並書 : 如虯字初發聲
ㅋ. 牙音 : 如快字初發聲
ㆁ. 牙音 : 如業字初發聲
ㄷ. 舌音 : 如斗字初發聲
　並書 : 如覃字初發聲
ㅌ. 舌音 : 如呑字初發聲
ㄴ. 舌音 : 如那字初發聲
ㅂ. 脣音 : 如彆字初發聲
　並書 : 如步字初發聲
ㅍ. 脣音 : 如漂字初發聲
ㅁ. 脣音 : 如彌字初發聲
ㅈ. 齒音 : 如卽字初發聲
　並書 : 如慈字初發聲
ㅊ. 齒音 : 如侵字初發聲
ㅅ. 齒音 : 如戌字初發聲
　並書 : 如邪字初發聲
ㆆ. 喉　音 : 如挹字初發聲
ㅎ. 喉　音 : 如虛字初發聲
　並　書 : 如洪字初發聲
ㅇ. 喉　音 : 如欲字初發聲
ㄹ. 半舌音 : 如閭字初發聲
ㅿ. 半齒音 : 如穰字初發聲
ㆍ. 如呑字中聲
ㅡ. 如卽字中聲
ㅣ. 如侵字中聲
ㅗ. 如洪字中聲
ㅏ. 如覃字中聲
ㅜ. 如君字中聲
ㅓ. 如業字中聲
ㅛ. 如欲字中聲
ㅑ. 如穰字中聲
ㅠ. 如戌字中聲
ㅕ. 如彆字中聲

終聲復用初聲.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ㆍ ㅗ ㅜ ㅛ ㅠ : 附書初聲之下. ㅣ ㅏ ㅓ ㅑ ㅕ : 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2. 訓民正音 例義篇에 관하여

훈민정음은 ① 예의편(例義篇 : 훈민정음 본문) ② 해례편(解例篇 : 훈민정음 해례)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壯憲大王實錄), 월인석보(月印釋譜), 훈민정음 원본(訓民正音 原本 ; 국보 제70호) 및 기타의 전적(典籍)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훈민정음의 본문(本文)이라고 하는 예의편에 관한 세종장헌대왕실록(이하 『세종실록』이라 약칭)의 기록을 보면

(1) 세종 25년(1443) 12월 30일(庚戌)조 (實錄은 陰曆임)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해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뉘어지며,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 문자(文字 ; 漢字를 뜻함)와 본국이어(本國俚語 : 우리말)를 모두 만족하게 다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이른다.』

라고 실려 있다.

위에서 보인 실록의 내용 중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예의편(例義篇) 속에 들어있는 새로 만든 훈민정음 28글자

즉,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ㅁ ㅂ ㅍ ㅅ ㅈ ㅊ ㅿ ㅇ ㆆ ㅎ (17글자)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11글자)

는 들어 있지도 아니 하니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신문자

(新文字) 창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세종실록 28년 9월 29일(甲午)조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 例義篇과 解例篇)을 반포(頒布)할 때 훈민정음 예의편이 빠짐없이 전재(轉載)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한 의문이 제기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의문점을 열거하면

① 한 나라(一國)의 문자(文字)를 새로 제정한 내용이 고작 한자(漢字) 57글자만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② 더구나 절대 왕권시대에 임금(세종대왕)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크나큰 사업이었고 신문자(新文字) 창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그 위업을 현양함이 지당한 일인데 이다지도 간략하고 소홀하게 취급(기록)될 수가 있는가?

③ 또한 실록상 기록의 주된 목적이 문자(文字)가 새로 만들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글자는 한 글자(一個字)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인가?

④ 그리고 음력 12월 30일은 일년의 마지막 날인데 하필 이 날짜의 실록에 실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공백(空白)이 있는 말미(末尾) 부분에 기록되었으며 내용조차 상식 이하로 부실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상에 열거된 의문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종실록의 관련부분을 인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최만리(崔萬理) 등의 훈민정음 반포 반대 상소문

≪세종실록 26년 2월 20일(庚子)조≫

①『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 上疏曰 臣等伏覩諺文制作. 至爲神妙』

[해설]

『경자(세종 26년 2월 20일)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기를 신(臣) 등이 엎드려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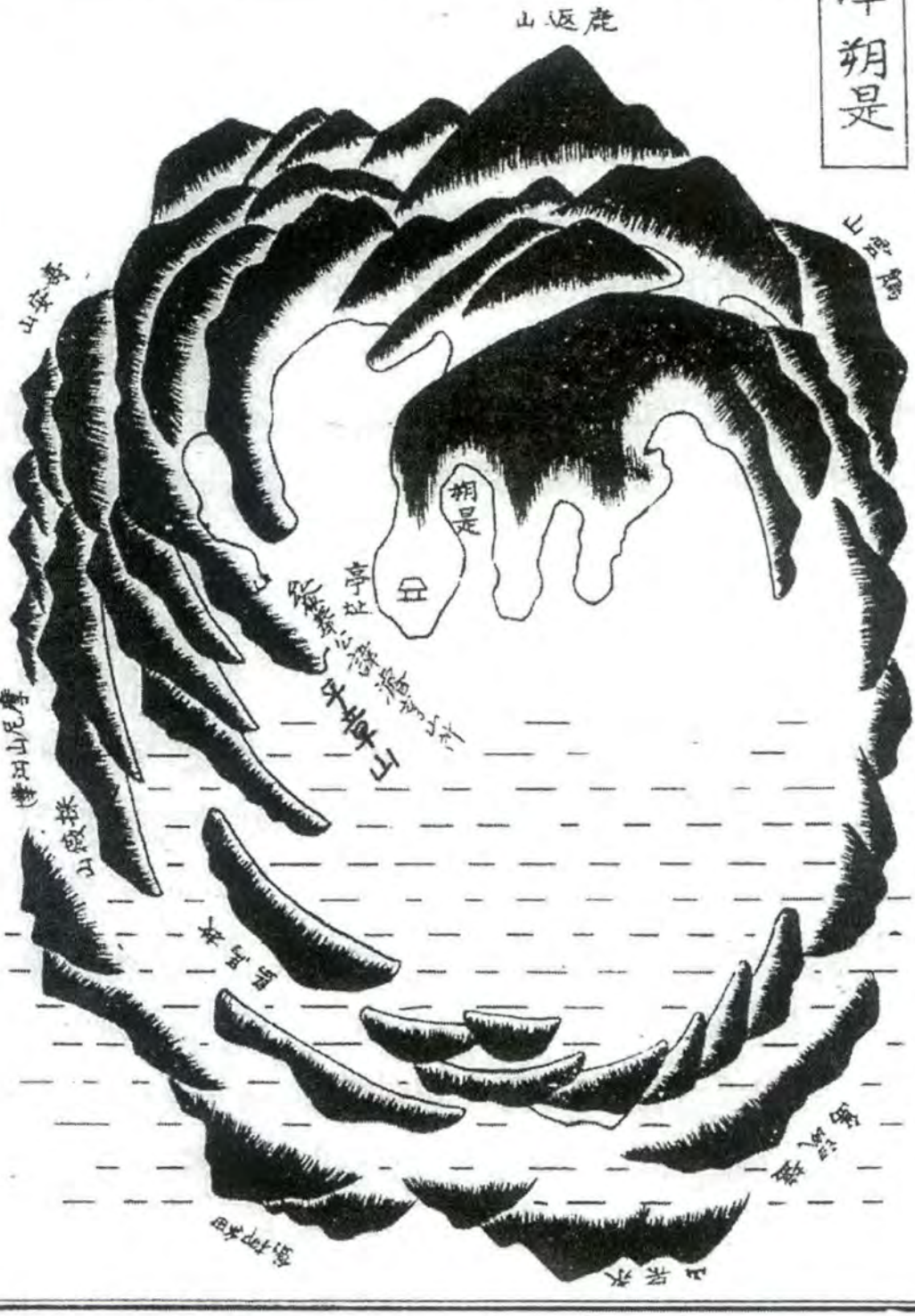
②『…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中略〉…附會無稽之諺文聚工匠數十人刻之劇欲廣布』

[해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돌연히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중략)… 근거없는 언문(諺文)을 억지로 이치에 발라 맞추어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太虛亭遺趾圖 又參奉公諱濬墳山圖

通津 朔是



태허정(太虛亭) 최항 선생(催恒先生)과 삭시(朔是)의 유래(由來)

자료 : 1.조선왕조실록(朝鮮王祖實錄)
2.태허정 문집(太虛亭文集)
3.삭녕 최씨 대동보(朔寧催氏大同譜)

태허정 최항선생(太虛亭 催恒先生)께서는 경기도 삭녕군 마장면 대전리 괴은촌(京畿道 朔寧郡 馬場面 大田里 槐隱村)에서 출생(出生) 알성문과 장원급제(謁聖文科壯元及第)하기 전까지는 삭녕(朔寧)에서 성장하면서 학문에 열중

세종16년 갑인년 3월 9일(1434) 문과장원 급제 후, 선교랑 집현전 부수찬(宣敎郎 集賢殿 副修撰)에 제수되고 또한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다.

「사숙제(私淑齊) 강희맹(姜希孟) 선생이 지은 태허정(太虛亭) 묘지문(墓誌文)을 보면 세종이 성균관에 임어하여 대책(對策)으로 선비를 뽑을 때 공(태허정)을 장원으로 뽑아서 특별히 선무랑, 집현전 부수찬, 지제교겸 경인사경을 제수하여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를 편수 하는데 참여하게 하셨다.

이때에 대제학(大提學)이던 지제(止齊) 권제(權齊) 선생이 공을 소중히 여겨 본인(권제)에 누님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셨다 」는 기록을 보아 태허정 최항선생은 서기 1434년 3월 이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부터 한양 서소문 안에서 시작하여 단종1년 계유년 10월 10일 서기 1453년 계유정난 후 동년 11월 8일 수충위사 협찬정난 1등 공신에 책훈 되어(별지참조:단종실록 단종3년 1월 24일조) 단종3년 1월 24일(1455)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가선대부 이조참판, 집현전 제학, 동지 경연 춘추관사, 영성군의 교서를 받으실때 "공훈을 책정하여 1등을 삼고 그 부모와 아내에게 전지 2백결, 노비 25구, 안구마 1필, 백은 50냥, 표리 1단을 주노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敎, 輸忠衛社 協贊 靖難 功臣 嘉善 大夫 吏曹參判 集賢殿 提學 同知經筵春秋館事 寧城君 催恒 曰」

「策勳爲一第 爵基父母及妻 宥及永世 返賜田二百結 奴婢二十五口, 鞍具馬一匹, 白銀五十냥, 表裏一段, 至司領也」

이때에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는 전지(田地) 즉 사패지지(賜牌之地)가 바로 경기도 통진부 대파면(京畿道 通津府 大破面) 학운산(鶴雲山) 아래 삭시리(朔是里) 현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대의 지역으로서 서해에서 밀려오고 밀려가는 해수(海水)가 학운산에 부딪치어 음곡(音曲)을 내면 갈매기 가무와 석양의 노을에 풍경이 선인(仙人)의 터 인즉 최항선생께서는 삭녕(朔寧)에 살고 있는 둘째 형님 참판공(吏曹參判, 諱, 衡)형의 아드님이시고 최항선생의 조카 참이공 영주(兵曺參議, 諱, 永澍)를 통진 삭시에 있는 공신 전지로 받은 사패지지(賜牌之地)안 학운산 어귀 능골에 집을 지어 주고 살게 하니 이곳에 처음으로 민가가 생겨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후부터 삭녕 최씨(朔寧催氏)가 살고 처음으로 마을을 이르고 살았다고 삭시(朔是)라 하였다. 또한 태허정 최항선생도 이곳의 근처에 처남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세종2년 1420~성종19년 1488년, 좌찬성)선생과 이웃 대포리에 목안정(木雁亭)을 짓고 사시는 눌재(訥齊) 양성지(梁誠之, 태종15년 1415~성종13년 1482, 대제학)선생이 이곳에서 교유(交遊)한다는 소식을 듣고 삭시 학운산 어귀 경치 좋은 곳에 태허정 정자와 집을짓고 사시면서 처남 서거정 선생, 양성지 선생, 낙한재(樂閒齋), 윤자운(尹子雲, 태종16년 1416년~성종9년 1478년:영의정)선생 또한 서석(瑞石) 김국광(金國光, 태종15년 1415년~성종11년 1480년,좌의정) 선생외 신숙주 선생, 구치관 선생, 한계희 선생 등등 시서(詩書)를 강론하고 국사(國事)를 논하시곤 하셨다.

단종3년 갑술년 8월 17일(1455) 모친상을 당하여 삭녕 선산에 어머니를 예장하고 시묘살이를 하신 후 1457년 8월에는 마침 둘째 형님인 참판공(휘:형)께서 세조2년 병자년(1456) 병자사화때 귀머거리를 핑게삼아 삭녕에 낙향하셨는데, 둘째 형님을 모시고 통진 삭시로 함께 오셔서 조카 참의공(휘:영수)과 이웃하여 서로 망견(望見)하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하던 선비 마을이라고 그 명성(名聲)이 자자하였다.

또한 세조3년 정축년 10월 3일(1457)에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관복직(復官復職)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嘉善大夫 戶曹參判)에 제수되고 세조4년 무인년(1458) 10월에 망극하게도 아버지의 상을 당하시어 삭녕에서 시묘살이 하던 중 기복(起復)의 어명에 여러번 기복사양의 글을 (1459년 5월 11일, 12일, 13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부친상 시묘살이 중

세조5년 기묘년(1459) 5월말경 김포 삭시로 오셔서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하시고 부모님의 산소를 못 섬긴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태허정 정자 건너편에 부모님을 섬기는 향음으로 2~3년생 향나무와 기리 효도의 본의가 되겠다고 느티나무를 심으시고 정성으로 나무를 보살피셨다는 전언이 후손에게 전하여 오고 있다.

오늘날 학운리에는 느티나무만 후손에게 보호되고 있고 태허정 선생의 사시던 집과 정자, 우물터, 향나무는 간 데가 없고 그 흔적만 있으니, 어찌 안타깝다고만 하겠는가?

태허정 최항선생의 후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삭녕최씨 사정공파 후손들이 의견을 모아 태허정 유적지 보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첫 사업으로 현재 생존 하고있는 느티나무의 연도를 측정한 결과 (결과내용: 1459년5월에 3년생 느티나무와 향나무 두 그루를 식수 하셨다.)

또한 집터와 정자터에서 기와장을 수거김포시에 의뢰, 고증하여 결과를 알아보니 그 연도가 1450년때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연차사업으로 김포문화원이 주관하여 태허정 유허비를 세우고 존상을 추모하여 은덕을 기리게 되었다.

옛 삭시리 일대는 지금도 참판공(휘:형)의 후손과 태허정 최항 선생의 후손들이 500여년 동안 집성촌으로 살고 있으며, 서해의 해수(海水)가 출렁이며 학운산과 벗하던 곳은 전답으로 변하고 오직 생존하고 있는 느티나무만 태허정 후손들을 반기고 태허정 최항 선생이 거처하던 집터, 정자터, 우물터, 향나무가 있던 곳은 잡초의 터전이 되었으니 공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敎輸忠節祉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同知經筵春秋館事寧城君ㅅ崔恒ㅁ:

自古有國家者, 必擧崇德報功之典, 以答大勳而勉其忠也。 予雖否德, 敢忘斯義? 卿操行端謹, 秉心忠直。 早負奇偉拔出之才, 有致君澤民之志。 昔我皇祖莊憲大王臨雍策士, 得卿爲策一, 卽置經帷, 以資顧問。 卿學問之博、文章之高, 議論之正, 卓越不群, 又能小心奉公, 守正不阿, 大爲皇祖器重, 或置眷坊, 輔養儲德, 或兼史局, 俾任編摩, 才無不可, 所居稱職。 逮我文考恭順大王, 擢爲諫〔議〕大夫, 謇言讜論, 蹇蹇有匪躬之節。 予小子幼沖嗣位, 蒙未有知, 實賴我左右之臣, 匡救不逮。 擢卿爲喉舌, 能忠納惟允, 庶無愧於先哲者矣。 不意至親琄, 陰結權姦, 約爲腹心, 內通宦寺, 外樹黨援, 潛畜死士, 禍在呼吸, 叔父首陽大君先炳幾微, 決策剗除。 卿適直禁內, 卽知逆順, 同心協謀, 贊成大功, 是雖天地祖宗扶佑之力, 亦有二三子之功是賴, 弘濟艱難, 以有今日。 嗚呼! 建非常之功者, 宜受莫大之報。 爾勳爾忠在我王室, 萬世永賴。 予嘉乃績, 策勳爲一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二百結、奴婢二十五口、鞍具馬一匹、白銀五十兩、表裏一段, 至可領也。 於戲! 疾風勁草, 旣成倉卒之功, 泰山、黃河, 益堅終始之誓, 子孫千億, 永世不渝。

〈 단종3년 갑술년 1월24일 서기 1455.교서 〉

교서 해설문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동지경연 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에게 하교하기를,

"옛적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반드시 덕을 높이고 공을 갚는 법전을 거행하니, 큰 공에 보답하고 그 충성을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부덕(否德)하나마, 감히 이 의리를 잊겠는가? 경은 조행이 단정하며 근신하고 마음가짐이 충성하며 정직하였다. 일찍이 기위(奇偉)하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고 백성을 은택(恩澤)하는 뜻이 있었다. 옛날 우리 황조(皇祖) 장헌 대왕(莊憲大王)이 벽옹(辟雍)2920) 에 임하여 선비를 시험하시어 경을 얻어 재일로 삼아서, 곧 경유(經帷)2921) 에 두고 고문(顧問)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경이 학문의 넓음과 문장의 능숙함과 의논의 정직함이 탁월하여 무리에서 뛰어났고, 또 능히 조심하여 봉공(奉公)하고 바른 것을 지켜 아침하지 않아서 크게 황조의 기중(器重)함을 받은 혹은 춘방(春坊)에 있어 세자의 덕을 보양(輔養)하고 혹은 사국(史局)2922) 을 겸하여 편집을 맡기었는데, 재주가 불가(不可)한데가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적재에 맞았다.

우리 아버지 문종(文宗) 공순 대왕(恭順大王)에 미쳐서는 발탁하여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삼으니, 곧은 말과 곧은 의논에 애써서 몸을 돌보지 않는 절개가 있었다. 나 소자(小子)가 어린 나이로 위(位)를 이으니,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어 실로 좌우의 신하가 나의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아 구제하였다. 경이 후설(喉舌)이 되어 능히 출납하는 것이 성실하였으니 지의 선철(先哲)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뜻밖에 지친(至親) 이용(李瑢)이 가만히 권간과 결탁하여 복심이 되기를 약속하여 안으로는 환관을 통하고 밖으로는 당원(黨援)을 심어서 몰래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장사를 길러 화가 아주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먼저 기미를 알아서 계책을 결단하여 왜히 제거하였다. 경이 마침 금내(禁內)에 번들었는데, 곧 역(逆)과 순(順)을 알아서 마음을 함께 하고 모사에 합하여 큰 공을 도와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천지 조종의 부조(扶助)한 힘이나, 또한 두세 사람의 공에 힘입어서 난국을 크게 구제하여 오늘이 있게 되었다. 아아! 비상한 공을 세운 자는 마땅히 막대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 네 공과 네 충성이 우리 왕실에 있어 만세의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 내가 네 공적을 아름답게 여기어, 공훈을 책정하여 1등을 삼고, 그 부모와 아내에게 벼슬을 주고 사유(赦宥)가 영원히 후대에 미치게 한다. 인하여 전지 2백 결·노비 25구·안구마 1필·백은 50냥·표리 1단을 주노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모진 바람에 굳센 풀같이 이미 창졸의 공을 이루었으니, 태산(泰山)과 황하(黃河)로써 더욱 시종의 맹세를 굳게 하여 자손 천억(千億)에 영세토록 변치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3년 1월 24일(경오) 010/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최항에게 하교하다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委社協贊靖難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동지경연 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에게 하교하기를,

"옛적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반드시 덕을 높이고 공을 갚는 법전을 거행하니, 큰 공에 보답하고 그 충성을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부덕(否德)하나마, 감히 이 의리를 잊겠는가? 경은 조행이 단정하며 근신하고 마음가짐이 충성하며 정직하였다. 일찍이 기위(奇偉)하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고 백성을 은택(恩澤)하는 뜻이 있었다. 옛날 우리 황조(皇祖) 장헌 대왕(莊憲大王)이 벽옹에 임하여 선비를 시험하시어 경을 얻어 제일로 삼아서, 곧 경유(經유)에 두고 고문(顧問)에 이바지 하였다. 경이 학문의 넓음과 문장의 높음과 의논의 정직함이 탁월하여 무리에서 뛰어났고, 또 능히 조심하여 봉공(奉公)하고 바른 것을 지켜 아첨하지 않아서 크게 황조의 기중(器重)함을 받은 혹은 춘방(春坊)에 있어 세자의 덕을 보양(輔養)하고 혹은 사국(事局)을 겸하여 편집을 맡기었는데, 재주가 불가(不可)한데가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직책에 맞았다.

우리 아버지 문종(文宗) 공순 대왕(恭順大王)에 미쳐서는 발탁하여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삼으니, 곧은 말과 곧은 의논에 애써서 몸을 돌보지 않는 절개가 있었다. 나 소자(小子)가 어린 나이로 위(位)를 이으니,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어 실로 좌우의 신하가 나의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아 구제하였다. 경이 후설(喉舌)이 되어 능히 출납하는 것이 성실하였으니 거의 선철(先哲)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뜻밖에 지친(至親) 이용(李瑢)이 가만히 권간과 결탁하여 복심이 되기를 약속하여 안으로는 환관을 통하고 밖으로는 당원(黨援)을 심어서 몰래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장사를 길러 화가 아주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먼저 기미를 알아서 마음을 함께 하고 모사에 합하여 큰 공을 도와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천지 조정의 부조(扶助)한 힘이나, 또한 두 세 사람의 공이 힘입어서 난국을 크게 구제하여 오

늘이 되었다. 아아! 비상한 공을 세운 자는 마땅히 막대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 네 공과 네 충성이 우리 왕실에 있어 만세의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 내가 네 공적을 아름답게 여기어, 공훈을 책정하여 1등을 삼고, 그 부모와 아내에게 벼슬을 주고 사유(赦宥)가 영원히 후대에 미치게 한다. 인하여 전지 2백 결, 노비 25구, 안구마 1필, 백은 50냥, 표리 1단을 주노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모진 바람에 굳센 풀같이 이미 창졸의 공을 이루었으니, 태산(泰山)과 황하(黃河)로써 더욱 시종의 맹세를 굳게 하여 자손 천억(千億)에 영세토록 변치 말라."하였다.

- 녹록의 당 · 상기품은 김포 -

김포시

수신자 삭녕최씨대종회 회장 최영우

(경유)

제목 기와연대 및 느티나무 연대(수령)추정 회신

1. 소중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종친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삭최04.-11.-1(2004.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양촌면 학운리 산61-1번지에 위치했던 태허정의 정자터와 최항선생 추정 집터에서 나온 유물 및 느티나무의 연대추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태허정 정자터에서 채집된 유물 (와편 3점)
- 이들 중, 2점은 적선계이고 1점은 흑본계로 모두 중호문계열의 동체와편 가진 와편임.
- 중호문계열은 조선시대 중기(15-16세기)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조선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문양임.
- 그러나, 이들 기와편의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어 양질 점토를 기술인 근에 사용되던 기와로 생각됨.

나. 최항선생 추정 집터에서 채집된 유물 (와편 2점과 토기편 1점)
- 와편중 2점 모두 와질소성으로 태허정 정자터 수습와편보다 소성이 약함.
1점은 태허정 채집 기와 문양과 비슷한 중호문계의 문양임. 다른 1점은 수집이어서 문양 판독이 불가
- 2점 모두 태토가 곱고 정선되어서 태허정의 채집유물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올릴 가능성도 있음.
- 토기편은 외면에 사격자문 내측에 방사선상의 두드림문으로 두드림 흔적이 있음.
- 조선시대의 토기편으로 추정됨
<경희대학교 교수/문화재연구소 연구위원 최태선 수집>

다. 양촌면 학운리 379-4번지상의 느티나무 수령 추정
- 보호수 의과수술 전문업체에서 육안으로 감정한 결과 약300~350년 정도로 추정.
정확한 수령을 알고자 하면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 산림경영과(tel:02-961-2637)에 '노거수 수령감정' 민원사무(유료)가 [illegible]시기 바랍니다.끝.

김포시

★보존기간 김덕규 팀장전결 유승환 문화관광과장 협조 11/24 조유승환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9349 (2004.11.24.) 접수 ( )

우 415-72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 http://www.gimpo.go.kr

전화 031)980-2741 /전송 031)980-2739 / tkyu78@gimpo.go.kr / 공개

- 축복의 땅 · 살기좋은 김포 -

김포시

수신자 삭녕최씨대종회 회장 최영우

(경유)

제목 느티나무(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건의에 따른 회신

1. 소중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종친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삭최 05-3(2005.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양촌면 학운리 379-4번지상의 느티나무(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경기도문화재위원, 조경분야)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 느티나무는 육안으로 보아 300여년정도로 추정되며 나무 주변에 주택과 창고가 있어 기념물로서 지정가치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정 보호수정도의 지정여건을 강안한다면 최항 선생의 정자복원을 강안한 주변 건물철거를 전제로 보호수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끝.

김포시장

★토목서기보 김태규 행정주사 유승환 문화공보담당관 전결 03/22 박동문

협조자

시행 문화공보담당관-2498 (2005.03.23.) 접수 ( )

우 415-72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 http://www.gimpo.go.kr

전화 031)980-2741 /전송 031)980-2739 / tkyu78@gimpo.go.kr / 공개

국립산림과학원

수신자 최영재 귀하 (우422-821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112호)
(경유)

제목 느티나무 수령감정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 국립산림과학원 민원-1283(2004.11.30)호.

2. 위와 관련하여 현지 느거수목의 목편 후원 및 동공화원 부근의 연륜 측심을 실시한 결과 수령이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수종	흉고직경	추정 수령	비고
느티나무	110cm	약 400년	하부 약 10cm정도 부패 부가 심하였고, 그 외 [illegible] 특별 등급수로의 판정.

붙임 수형측정 상세내역 1부. 끝.

국립산림과학원

사무관 [illegible] 연구관 [illegible] 원장 [illegible]

협조자

시행 산림경영과-[illegible] (2004.12.13.) 접수

우 130-71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 www.kfri.go.kr

전화 (02)961-2657 전송 (02)961-2679 / [illegible]@foa.go.kr / 공개

금번 본 한국 식물 병원에서는 가시안건. 사진판독. 토양시료검사. 심부. 근부의 채취검사 외과 수술의 여부등 여러 방면으로 위 지번 소재 느티나무를 진단한 결과를 통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본 병원 수목 진단서 및 기타 서류를 토대로 보호수 지정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호 수 지 정 의 검 사 내 역

1) 가시안건

목질부가 곧고 가지가 웅장하여 검사결과 수형파괴가 없다.

2) 사진판독

지형이 언덕인 관계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3) 토양 시료검사

중성 토양으로 극 알카리성이 부족하나 B/S그린, 천연활성 미네랄등으로 산성화를 완화시켰다.

4) 심부. 근부

근부의 삼투압 기능저하. 목질 부위의 외피질 기능저하.

5) 외과수술 시술:별첨 시술 이행 전도 참조.

6) 기타

수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피톤치드의 극 활성화로 인하여 음존산소 결핍 정화 능력이 시간당CM=20.000RM) 1일 24만명분의 유산소 배출

*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2005년 1월.

국 가 공 인 법 인
(주) 한 국 식 물 병 원 원 장 조 기 제

노거수(느티나무)답사, 조사결과

1.개요

1)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삭시부락 379-4번지 소재 태허정(太虛亭) 최항(영의정 대제학)선생의 정자터와 집터에 손수 식수하였다는 노거수(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5-11번지(인일빌딩) 1층 소재 한국식물병원(원장 조기제) T.032-245-7979. HP.011-686-7582 DP 보호수 외과 수술의뢰

2)한국식물병원에서는 노거수(느티나무)에 대한 컴퓨터 레이져반사방법 및 수피막 분석.

수령의 생태등 종합 6종의 최신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위 노거수 느티나무 수령이 최항선생의 생존시 1409년 출생하시어 졸 하신 1474년도의 연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주변 역사적 자료 수집과 본 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1459년 당시 태허정 최항 선생께서 3년생 느티나무와 향나무 1주를 기념 식수한 것으로 밝혀져 학술연구 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희소성이 지대함을 확인하였음.

2. 노거수 현황

1)과명:느티나무(1주)

2)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삭시 379-4번지

3)면적:1주(株)

4)관리자:삭녕최씨 태허정 종중삭시파 관리자 최인행

*수령측정방법:컴퓨터레이져반사 및 수피막분석방법

*수령:545년

*수목규격:수고 28M, 수목폭 31M, 지하고 3.90M, 근원경 5.60M, 흉고직경 1.30M 등으로 나타난 거목으로써 수목이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불타 등공상태로 심하게 비어있어 신속히 의과수술을 의뢰하고 보호수로 지정이 시급함.



학운리 삭시 부락에 있음

戒二子詩 계이자시

戒二子詩幷小引 계이자시병소인 두 아들을 경계하는 시를 짓고 아울러 소인을 붙임

무자년(戊子年 1468년 세조 14년) 단오(端午)가 지난 지 6일 만에 나는 태허정에 있었다. 부슬비 뜰에 내리고 낮잠을 즐긴 뒤라 백청(伯淸)이 계숙(季淑)에게 시를 보내 화답한 것을 보다가 두 아이를 시켜 신(紳)에 쓰게 했다.

坐忘予欲學神凝　앉아서 나를 잊고 신응(神凝)을 배우려 하나
火宅奔趨惱鬱蒸　화택(火宅)[76]에 분주하게 달려 답답함에 번뇌했노라.
蝸角是非憂轉劇　와각(蝸角)의 시비는 근심만 점점 심해지고
龜毛得失病還增　귀모(龜毛)의 득실(得失)에는 병 도리어 더해 가네.
兢魂日接常流汗　조심스레 주상(主上) 대하여 항상 땀 흘렸으며
疊足台聯幾履氷　거듭 재상이 되어 몇 번이나 얼음 밟듯 하였던가?
怜我老衰甘瑟縮　불쌍하다 내 노쇠하니 오그라짐 감수하지만
喜渠强壯易梯升　기쁘구나 너흰 강장하니 사다리에 쉽게 오르겠지.
已將實藝攀蟾桂　이미 진실한 재주 가지고 문과에 급제했으니
安用浮文售鳳綾　어찌 뜬 문조로써 봉릉(鳳綾)을 팔겠는가?
志節尋常須嶽立　지절(志節)은 평상시에 산악 같이 새워야 하고
心源夙夜要淵澄　마음의 근원은 밤낮으로 깊고 맑음이 필요하다.
麴生迷了魚貪餌　술에 미혹됨은 고기가 미끼 탐한 같고
妖物蠱來蛾撲燈　요물에 흘림은 나방이 등불에 달려드는 것 같지.
一動或狂辜自速　한 번이라도 미치게 움직이면 허물 절로 부르고
三緘乍放禍方興　삼함(三緘)[77]을 잠시만 풀어놓아도 화가 이내 일어나리.
面諛預怕吹毛刃　직접 아첨하면 털 끊이는 칼날처럼 미리 두려워하고
膚受周防利角菱　서서히 헐뜯거든 끝 날카로운 마름처럼 두루 예방하라.
守默勿嘲人短劣　침묵 지켜 남의 단점(短點) 조롱하지 말고
撝謙莫詑己才能　낮추고 겸손하여 자기 재능(才能) 자랑 말라.
居高惟念小心翼　높은 자리 있을 땐 오직 조심할 것 생각하고
遇險但思攘臂仍　험한 일 만나면 다만 팔 걷어붙일 것 생각하라.
淸直他時收令譽　청직하면 훗날 좋은 명예 거둘 수 있고
恪勤何任患難勝　각근(恪勤)하면 어떤 임무든 이기지 못함을 근심할까?
我言維服勿爲笑　내 말을 오직 복종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子職當爲盍服膺　자식된 직분 마땅히 할 것 어찌 복응치 않으랴?
空百萬羣期電驥　백만 마리 쓸데없다 빠른 준마가 될 것이며
擊三千起擬雲鵬　삼천리 치고 일어나는 운붕(雲鵬) 되어라.
聞詩汝更終身誦　시를 듣거든 너희들은 다시 종신토록 외우라
言志吾徒信手憑　뜻을 말한 나는 다만 믿고 의지하노라.
善誘寧同過庭訓　잘 인도함이 과정(過庭)의 가르침[78]과 같겠나?
切磋猶待盍簪朋　절차(切磋)함은 오히려 벗들이 모여들기 기다리라.

훈 민 정 음 제 임 특 선 시

8. 訓民正音制任特選詩

밀 봉
蜜 蜂

崔 恒(號 太虛亭)

賦 性 雖 微 正 且 通
君 臣 有 義 與 人 同
含 花 聚 入 深 宮 裏
釀 蜜 營 生 大 樹 中
役 役 殷 勤 如 事 主
飛 飛 來 往 匪 厥 躬
莫 言 此 物 無 知 職
蹔 不 離 羣 似 盡 忠

※이 詩(시)의 형식은 七言律詩 東韻[칠언율시 동운 ; 通(통)·同(동)·中(중)·躬(궁)·忠(충)]임.

[번역문]

훈민정음 제임특선시

밀　　봉(꿀벌)

최　항 (호 태허정)

타고난 성품은 비록 미약하지만 바르고 또한 형통하며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어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하고

꽃에서 먹음어 모두어 가지고 깊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꿀을 빚으며 큰 나무 가운데서 삶을 영위해 가며

심력(心力)을 기울여 정성스럽고 정중함은 군주를 섬김과 같고

날아서 오가며 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함이며

이러한 일에 지혜와 식견이 없다고 말함이 없이

잠시도 무리에게 떠나지 아니함은 함께 충성을 다함이로다.

※ 이 시의 형식은 7언 율시 동운[통·동·중·궁·충]임.

번역 崔 明 宰

9. 文靖公 崔 恒 先生의 家系

문정공 최 항(文靖公 崔 恒) 선생은 조선조(朝鮮朝) 초기의 문신(文臣)이며 학자(學者)요 문장가(文章家)로서 제 3대 태종 9년(1409) 12월 옛 삭녕군(朔寧郡) 마장면(馬場面) 대전리(大田里) 괴은촌(槐隱村) 구기(舊基)에서 출생하여 제9대 성종 5년(1474) 4월 28일 향년(享年) 66세로 서거(逝去)하였다.

선생의 자(字)는 정보(貞父)요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幢梁), 증시(贈諡)는 문정(文靖)이요 본관(本貫)은 삭녕(朔寧)이다.

(1) 최 항(崔 恒) 선생의 선조(先祖)

선생의 시조(始祖)는 고려조 문하시랑 평장사(高麗朝 門下侍郎 平章事)를 지낸 최천로(崔天老)이며 그 몇 대 뒤에 고려 19대 명종 24년(1194) 역시 문하시랑 평장사를 끝으로 연로(年老)하여 물러난 최유가(崔瑜價)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대대로 삭녕 땅(옛 朔寧郡馬場面大田里槐隱村 : 현 휴전선 내 비무장 지대에 위치)에서 살아왔으므로 삭녕(朔寧)을 본관으로 삼아 「삭녕최씨(朔寧崔氏)」라 하게 되었다.

선생의 아버지인 사예공(司藝公) 최사유(崔士柔)는 조선조 태종 2년(1402, 壬午)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에 이어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거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를 역임하였으며 순충적덕 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에 추봉(追封) 되었다.

선생의 조부(祖父)인 전서공(典書公) 최윤문(崔潤文)은 고려말 호조전서〔戶曹典書 : 조선시대의 호조참판(戶曹參判)〕로서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曾祖)인 서승공(署丞公) 최 충(崔 忠)은 징사

랑(徵仕郞) 홍조서승(洪造署丞)을 역임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고조(高祖)인 낭장공(郞將公) 최선보(崔善甫)는 친어모군 낭장(親禦侮軍郞將)을 지낸 바, 그 위로는 중시조(中始祖)인 평장사공(平章事公) 최유가(崔瑜價)에 이르기까지 몇 대를 실전(失傳)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이 분을 삭녕최씨 낭장공파 1세조(朔寧崔氏郞將公派一世祖)로 하여 대대(代代)로 계대(系代)를 이어오고 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문정공(文靖公) 최 항(崔 恒) 선생은 세종 16년(1434)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壯元)으로 급제(及第)했을 당시, 세종대왕께서 관례(貫例)대로 공(公)을 인견(引見)하신 자리에서

"그대의 부친(父親)은 뉘이시며, 그 위로 6대조(六代祖)까지 소상하게 대보라."하는 하문(下問)이 계셨을 때, 선생은 부(父)·조(祖)·증조(曾祖)·고조(高祖) 등 4대조(四代祖)까지만을 아뢴 다음,

"5대조(五代祖) 이상의 조선(祖先)은 실전(失傳)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알지 못하옵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문정공 최 항(文靖公 崔 恒)선생은 삭녕최씨 낭장공파 5세(朔寧崔氏郞將公派 五世)로서 조선왕조(朝鮮王朝) 개국(開國) 이래, 최씨성(崔氏姓)으로서는 최초로 일인지하(一人之下)요 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는 영의정(領議政)의 자리에 올라 가문(家門)을 빛내고 자손(子孫)들이 현달(顯達)하여 번성(繁盛)함으로써 삭녕최씨(朔寧崔氏)의 중흥조(中興祖)가 되었다.

3. 최항(崔恒) 선생 약사

본관 삭령(朔寧). 자 정보(貞父). 호 태허정(太虛亭)·동량(棟梁). 시호 문정(文靖).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 집현전부수찬(副修撰)이 되어 정인지(鄭麟趾) 등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참여했다. 1444년 집현전 교리(校理)로서 《오례의주(五禮儀注)》를 찬진(撰進)했으며, 1445년 응교(應敎) 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창제에 참여했고, 《동국정운(東國正韻)》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용비어천가보수(龍飛御天歌補修)》를 찬진했다. 1450년(문종 즉위)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맞았으며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서 춘추관동지사(春秋館同知事)를 겸임,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1451년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로서 수사관(修史官)을 겸임, 정인지 등과 《고려사(高麗史)》를 개찬했으며,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때 《통감훈의(通鑑訓義)》를 편찬한 공로로 가자(加資)되었고, 이어 《문종실록(文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1453년(단종 1) 동부승지(同副承旨) 때 계유정난(癸酉靖亂)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 도승지가 되었다. 1454년 이조참판으로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지고 1455년(세조 1) 대사헌이 되어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58년 형조 공조 판서, 1460년 이조판서를 지내고, 1461년 양성지(梁誠之)의 《잠서(蠶書)》를 국역 간행하고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 조선 초기의 법률제도를 집대성했다.
1463년 《동국통감(東國通鑑)》 수찬(修撰)을 시작하고, 신숙주(申叔舟) 등과 《어제유장설(御製諭將說)》을 주해했다. 1464년 《사서오경(四書五經)》에 구결(口訣)을 달았으며, 1467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469년(예종 1) 《경국대전》을 찬진했고, 이어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수찬했다. 1470년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녹선되고 춘추관감사(監事)로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조선 초기의 훈구파(勳舊派)의 대학자로서 세조를 도와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으며, 역사·언어 등의 분야에 정통하고 문장이 뛰어나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의 표전문(表箋文)은 거의 도맡아 썼다. 문집에 《태허정집(太虛亭集)》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 등이 있다.

4.태허정(太虛亭)최항(崔恒)선생의 연보(年譜)

1409 (태종 9년, 己丑) [음력, 출생년을 1세로 함]
12월 임진(壬辰)에 삭녕(朔寧) 마장면(馬場面) 괴음촌(槐陰村) 최사유(崔士柔)의 4남으로 출생, 자(字)는 정보(貞父) 호(號)는 동량(幢梁) 또는 태허정(太虛亭),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1434 (세종 16년,26세)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당일로 선교랑(宣敎郞)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에 제수(除授)되시고, 지제교(知製敎) 및 경연사경(慶筵司經)에 겸임되시었으며, 호당(湖當)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으심. 또 이 해에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편찬에 참여하심

1443 (세종 25년, 35세)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訓民正音)창제를 주관하시어 완성시킴

1444 (세종 26년, 36세)
2월에 집현전 교리(校理)로서 (오례의주(五禮儀注)를 찬진(撰進)하고 운회(韻會)를 한글로 번역하심

1445 (세종 27년, 37세)
집현전 응교(應敎)에 진계(進階)되시고 훈민정음해례 등을 찬술하심.

1446 (세종 28년, 38세)
동방어음(東方語音) 훈민정음해례 등을 차례로 찬진하심. 이 해 9월 상한(上澣) 양력 10월 9일에 훈민정음28자를 세상에 반포 하였음.

1447 (세종 29년,39세)
용비어천가 찬진[공(公)의 발문(跋文)임],
동국정운(東國正韻)찬술.문과중시(文科重試)에 2등으로 합격,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특진(特進)되시고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을 겸임하시어 섭정을 하게 되신 세자[뒷날의 문종(文宗)] 를 도와 서연관(書筵官)으로 보좌함이 컸음

1450 (세종 32년, 2월에 문종즉위 , 42세)
정월에 선위사(宣慰使)로 임명되시어 중국 사신과 일본 사신을 접대하시고, 9월에는 사간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겸직하시어 언관(言官)으로 활동하심.

1451 (문종 1년, 43세)
2월에 사간원좌사간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가 되시고 수사관(修史官)을 겸직하시어[고려사(高麗史)]를 개찬(改撰)하시었으며, 7월에는 집현전부제학에 진계되시어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주석을 맡으시고 [자치강목(資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등을 편찬하신 공으로 가자(加資)되심.

1452 (문종 2년, 5월 단종즉위, 44세)
2월 세종실록편찬 때는 수찬관(修撰官) 으로서 참여하시고, 12월에는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심.

1453 (단종1년, 45세)

10월에 승정원 도승지에 오르시어 계유정란(癸酉靖亂) 때 협찬(協贊)하신 공으로 11월에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훈(策勳)되심. 그러나 공은 정난에 있어서 공효(功效)가 없었다고 [공신(功臣)의 호(號)]를 삭제하여 줄 것을 주청하심.

1454 (단종 2년, 46세)

2월에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에 오르시어 영성군(寧城君)에 책봉되시고, 10월에는 (공신연곡(功臣宴曲)4장을 찬진하시었으며,세종실록 편찬을 완성하심.

1455 [단종 3년, 윤(閏) 6월 세조 즉위, 47세]

정월에 수충위사협찬정난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가선대부 이조참판 집현전제학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舍) 영성군으로서 1등 책훈의 교서(敎書)가 내려졌으며, 2월에 사헌부대사헌에 배명(拜命)되시고, 7월에는 세자시강원우부빈객(世子侍講院右副賓客)을 겸임하시었으며, 이 해 8월에 모친상을 당하시고 시묘살이 시작 9월에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시었으며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심

1456 [세조 2년, 6월 14일(임자), 48세]

사알(司謁) 장말동(張末同)에게 명하여 술 과 찬거리를 가지고 가서 시묘살이 중인 전(前)대사헌 최항의 여소에 내려주게 하였다.(이 해에는 단종복위의 정변(병자사화)이 있었음.)

1457(세조 3년, 49세)

11월에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전임(轉任) 되시고, 12월에 또 다시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옮기셨으며, 이 해에[초학자회언주(初學字會諺注)]를 찬술하심

1458(세조 4년, 50세)

3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오르시고 [신육전(新六典)]의 초안을 작성하여 올렸으며, 이 해에 부친상을 당하심.

1459(세조 5년, 51세)

임금께서 부친상중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최항 선생에게 관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이 자식된 도리는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3회(5월 11일, 5월12일, 5월 13일)에 걸쳐 왕에게 상서한 내용이 실록에 재록되어 있음.

5월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시고 이때 왕명으로 관직에 복귀하여 [육전(六典)]을 비롯, [십이준도(十二駿圖)등을 찬수(撰修) 하시었으며, 11월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시어 지중추원사 (知中樞院事)가 되시고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규관대사성을 겸임하심.

이때에 [명황계감(明皇誡鑑)]의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여 올림.

1460(세조 6년, 52세)

4월에 [병서(兵書)를 주해(註解)하시고 또 [손자주해(孫子註解)]를 교정(校正). 10월에는 왕과 중궁(中宮) 및 세자가 황해도와 평안도를 순행하시게 됨에 따라 도성을 지키는 수상(守相)으로서의 총치유도서무(摠治留都庶務)의 명을 받으심.

1461(세조 7년, 53세)

6월에 숭정대부(崇正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시고 이 때에 양성지(梁誠之)가 지은 [잠서(蠶書)]를 한글로 번역 간행하시었으며, 이해에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 [훈사주해(訓辭注解)]등을 찬수하시고 [북정록(北征錄)]을 교정하심.

1462(세조 8년, 54세)

정월에 다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시고 서거정(徐居正)과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수(撰修)하시고,[정대업(定大業).보태평가사(保太平歌詞)]를 개작(改作)하심.

1463(세조 9년, 55세)

9월에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이 되시어 [병서신주(兵書新註)를 교정하시고,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어제유장설(御製諭將說)]3편을 주해(註解)하심.

1464(세조 10년,56세)

7월에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에 옮기시어 [靖難日記(정난일기)]를 찬술(撰述)하시고,9월에는 왕명(王命)으로 [병장설주(兵將設註)]를 산정(刪定)하시었으며, 이 해에 어제구현시(御製求賢試)에 1등으로 합격(合格)하시어 가자(加資)되심.

1465(세조11년,57세)

좌참찬에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임하시고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에 구결(口訣)을 정하심

1466(세조 12년,58세)

4월에 숭록대부(崇祿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시자,군사 관계는 적임이 아니라고 간절히 사양하시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심.

1467(세조 13년, 59세)

4월에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4월에 우의정,5월에 좌의정, 9월에 영의정에 오르심. 이 해에 [행군수지(行軍須知)]를 주해(註解)하시고 왕명으로 [북정가사(北征歌詞)]3장을 찬진하심.

1468(세조 14년, 9월 예종즉위,60세)

정월에 영성군에 환봉(還封)되시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에 겸임(兼任)되시고,세조의 행장(行狀)을 초집(草輯) 하시었으며, 경국대전상정소(經國大典詳定所) 도제조(都提調)를 겸임(겸임)하시어 세조즉위초에 육전상정관(六典詳定官)으로 임명(任命)되신 이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경국대전]을 완성하시고 [어마법(御馬法)]을 언해(諺解)하시었으며, 9월에는원상(院相)에 오르심.

1469 [예종 1년, 11월에 성종즉위(성종즉위), 61세]

이 해에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찬수하시었으며, 11월에 예종이 돌아가시고 성종이 즉위하자 [경국육전(經國六典)]을 찬진하시고 교서(敎書)를 찬술하심. 12월에 영경연사(領經筵事) 겸임.

1470 (성종 1년, 62세)

6월에 연로신병(年老身病)으로 치사(致仕)하기를 주청하시었으나, 왕이 불윤(不允)하시고 휴가요양을 하명하시었으며, 11월에는 영성부원군에 진봉(進封)되시고 역대제왕후비명감 (歷代帝王后妃明鑑)을 찬수하시었으며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를 겸임하시어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심.

1471 (성종 2년, 63세)

3월에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1등에 책훈 되시고, 10월에 좌의정에 재임되시었으며, 이 해에 의경묘옥책문(懿敬廟玉冊文)을 찬진하심.

1472 (성종 3년, 64세)

5월에 좌의정 상장사임(上狀辭任)하시고 영중추부사 (領中樞府事)로 재직

1474 (성종 5년, 66세)

3월에 또 다시 좌의정에 복배(復拜)되시었다가 4월 28일 향년 66세 졸(卒)하시니, 조정(朝廷)에서는 예법 (禮法)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기현 에 예장(禮葬)함.

2004년 문화관광부"10월의 문화인물" 로 선정되심

4. 崔 恒 先生의 人品과 孝行 및 선비 정신

(1) 최 항(崔 恒, 호 太虛亭)선생의 인품에 관한 기록

최 항선생의 인품(人品)에 대한 평가는 태허정집(太虛亭集 ; 최 항문집)에 실려 있는 서거정(徐居正)이 찬한 최 문정공비명(崔文靖公碑銘)과 강희맹(姜希孟)이 찬한 태허정묘지문(太虛亭墓誌文) 및 ≪필원잡기(筆苑雜記)≫·≪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등의 것과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있는 공의 졸기(卒記)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한결같이 태허정을 추앙하였고, 후자에서는 비판적이었다. 서거정이 찬한 비명은, 태허정이 서거정의 자부(姊夫)였으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강희맹의 묘지문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강희맹이 찬한 묘지문에는 태허정의 인품을 묘사하기를,

"공은 성품이 겸공(謙恭)·간정(簡靜)·단개(端介)·무화(無華)하고 처신이 공정하였으며, 평소 집에 있을 때에도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정관위좌(整冠危坐 ; 의관을 바로 하고 무릎을 꿇고 몸을 바르게 하고 앉음)하고 조금도 게으른 모습이 없었다. 공무(公務)에 있어서는 나랏일을 집안일 같이 걱정하였다. 정무(政務)에는 관대하고 경장(更張)은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말할 때에는 항상 양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나, 조정의 논의에서 대사(大事)를 결정함에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집에서는 청백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고,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재산을 탐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모두 부인에게 맡겨 간섭하지 않았으며, 친척에게는 어질게 대하였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공순하게 대하였다. 일이 있으면 항상 세 번(거듭) 생각한 다음 처리하였고 관직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탄핵을 받지 않았다. 사도[斯道 ; 유학(儒學)]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후학(後學)들을 권장하여 이끌었다."라고 하여 극구 칭송을 하였다.

≪성종실록≫에 실려 있는 태허정 졸기(卒記)에서는 '겸근과언(謙謹寡言 ; 겸손하고 삼가며 말이 적음)'과 '정의관(整衣冠) · 위좌(危坐)하였다고 한 것은 같으나 결단성이 없고 정승으로 임명된 후에도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을 사양치 않고 겸직한 점 및 그 부인(夫人)의 가정생활 등, 소소한 문제를 들어 폄론(貶論)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삼사(三司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계통에 진출한 신진 사림파(士林派)관료들이 전직 훈구파(勳舊派)대신들을 공격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공(公)이 선비로서의 인품을 좀더 살펴 보면

성종 1년(1470, 62세 때) 6월에 연로신병(年老身病)으로 치사(致仕 ;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기를 임금께 주청하였으나 불윤(不允)하시었고 성종2년 10월에 재입상(再入相: 두 번째 정승이 됨)을 사양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결국 좌의정에 재임(再任)되었고, 다음해(성종3년) 5월에 좌의정 직에서 상장사임(上狀辭任)하여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었으며, 성종5년(1474) 3월에 또 다시 좌의정에 복배(復拜: 재차임명)되었다가 4월28일에 향년 66세로 서거하니 조정에서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기현에 예장(禮葬)하고 그 지역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下賜)하였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음)

(2) 최 항 선생의 효행(孝行) 및 선비정신에 관한 기록

공(公)은 세종때 집현전학사로서 훈민정음(訓民正音→한글)을 창제하는데 주역(主役)을 담당하는 등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조 초기의 문신(文臣)으로서 공신록(功臣錄)에 3차례나 기록(수충위사협찬 정난공신1등, 수충위사동덕 좌익공신2등, 순성명량경제홍화 좌리공신1등)된 충신으로서 관직이 영의정에까지 오른 중신(重臣)일 뿐만 아니라 효행과 선비정신이 투철한 올곧은 선비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공의 행장(行狀)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세조5년(1459, 51세 때)의 일이다. 전년(1458)에 공(公)이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임금께서 기복출사(起復出仕: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아감)를 명하자 그 왕명이 자식 된 도리에 어긋남은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3회(1459년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에 걸쳐 상서(上書)하였으나 3차례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최 항선생의 행장내용은 조선왕조 선비의 기개(氣槪)와 효행(孝行)의 표상(表象)으로써 선생의 효행과 선비정신을 잘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최 항(崔 恒)선생의 기복 불응(起復不應)상서문(上書文)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에 싣기로 한다.

[첨 부]

◉ 1459년 부친상 시묘(父親喪 侍墓)중 기복 불응(起復 不應) 상서문(上書文) 〔3회(5월11일, 5월12일, 5월 13일)〕

5월 11일(임진) 비가 내렸다.

○최 항(崔恒)이 상서(上書)하기를,(번역문)

"신(臣) 최 항(崔恒)은 삼가 특별한 명(命)을 입어 기복(起復)되고 인하여 직사(職事)에 제수되니, 놀라 식은땀이 나며 비감(悲感)이 번갈아 깊었습니다. 삼가 즉시 허물을 진사(陳謝)하고 문득 저의 정성을 호소하여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원했지마는 유음(兪音: 신하의 주품(奏稟)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을 받지 못했으므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본래 용렬하고 우매한 자질로써 성상의 은혜를 잘못 입어서 외람되게 훈신(勳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여 마침내 재상(宰相)의 줄에 끼였는데 보필(輔弼)은 사호(絲毫: 매우 적은 수량)도 없었으나 은혜는 천지(天地)보다 지나쳤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발생하게 되고 죄가 쌓여서 재화(災禍)가 이르게 되어,

두서너 해 사이에 내간(內艱:모친상)과 외간(外艱: 부친상)이 서로 잇달아 흙덩이를 베개 삼아 베고 외롭게 지내며 여묘(廬墓)살이를 하며 근심하고 지냈는데, 어찌 성상께서 뜻을 잊지 아니하고 작명(爵名 : 관직을 내리는 명령)을 빨리 더하였으니 무슨 인연으로 은혜가 갑자기 무상(無狀: 착한 행실이나 공적이 없음) 불차탁용(不次擢用)의 자질에 미치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감격은 구원(九原)까지 통하고 슬픔은 오장(五臟)을 격동(激動)시켰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복(起復)은 심상(尋嘗)한 선비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능의 있고 없음으로 경중(輕重)을 삼는 것이니, 신(臣)과 같은 어리석은 자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臣)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아는데 세상 사람이 어찌 비난이 없겠습니까? 신(臣)이 거듭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는 똑같은 한 몸이고 충성과 효도는 두 가지 도리(道理)가 아닙니다. 어미의 품을 떠나도 은혜가 무거운 것은 천년 동안 한결 같으며, 어버이를 섬기는 시일이 짧으니 백세(百歲)가 두 번 오기가 어렵겠습니다.

——— (중 략) ———

성명(成命:임금이 내린 명령)을 뒤따라 중지시키어서, 상복(喪服)을 그대로 입게 하고 돌아가 부모의 산소(山所)를 지키게 한다면 거의 아래로는 어버이를 섬기는 마지막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위로는 효도로써 다스리는 풍속에 저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답답한 회포가 있어서 묵묵(默默)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천위(天威)를 범하게 되니 더욱 더 떨리며 두렵습니다."하였다.

어서(御書)로 이에 답하기를,

"일의 중대한 것은 나라에서 함께 일컫는 바이고, 경(卿)의 재주는 내가 홀로 아는 바이니, 온전히 한 몸만 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땅히 만세(萬世)에 널리 이익 되게 해야 한다."하였다.

5월 12일(계사) 최 항(崔恒)이 또 상서(上書)하기를 (번역문)

"신(臣)이 기복(起復)을 사양하기를 원하여 여러 번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진

실하였는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민망하고 답답함이 더욱 간절하여 감히 우매함을 무릅쓰고 번독(煩瀆)합니다. 신(臣)이 그윽히 생각하건대, 어버이는 자식에게 은혜와 정성이 망극(罔極)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정의(情誼)가 또한 무궁(無窮)하니 비록 3년의 상제(喪制)를 행하더라도 어찌 족히 종신(終身)의 슬픔을 덜 수 있으며 어버이에게 보답하겠습니까? 옛날의 성인(聖人)은 잠정적으로 중인(中人)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해서 큰 방한(防限)을 제정하여 가령 비록 불초(不肖)한 사람이라도 또한 반드시 꾀하여 미치도록 하였으니 그 마음을 쓴 것이 후(厚)하였으며, 그 예절을 제정한 것이 지극했습니다. 우리 부자(夫子 : 공자(孔子))께서 일찍이 재여(宰予 :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문인(門人))의 상기(喪期)를 단축(短縮)시키는 물음을 책망하면서 이르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네 마음에 편하냐?'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또 말하기를, '재여(宰予)도 자기 부모로부터 삼년 동안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 하면서 그 어질지 못하다는 말을 깊이 배척하여 천하 만세(萬世)에 남의 자식된 사람으로 슬픔을 잊고 정(情)에 따라서 3년의 상제(喪制)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인(匪人: 행위(行爲)가 부정(不正)한 사람)에 비교하여 천지(天地)간에 함께 설 수 없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큰 방한(防限)을 견고(堅固)히 하고 사람의 도리(道里)를 세운 것이 엄했던 소이(所以)입니다. 세상에 어찌 어버이가 없는 자식이 있겠으며, 상제(喪制)를 어찌 단축(短縮)시킬 의리가 있겠습니까? 곧 기복(起復)의 제도는 다만 한때의 권도(權道)일 뿐이니 항상 행할 수 있는 전거(典據)는 아닙니다. ————(중 략)————

어서(御書)로 비답(批答)하기를,

"재여(宰予)가 상기(喪期)를 단축(短縮)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경(卿)도 또한 이 뜻이 있는가? 공자(孔子)의 책망은 나의 책망이고, 나의 기복(起復)시키는 것은 공자(孔子)의 기복(起復)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공자(孔子)는 재여(宰予)에게 힘입을 일이 없었지마는, 나는 실로 경(卿)에게 힘입을 일

이 있으니, 형세의 전연 다른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 뿐만이 아니다. 경(卿)의 슬픔을 깊이 위로하니, 효도하는 생각을 힘써 누르고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 받으라."하였다.

5월 13일(갑오) 최 항(崔恒)이 또 上言하기를, (번역문)

"신(臣) 최 항(崔恒)은 우매한 자질로써 외람되게 성상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항상 간절히 마음속으로 맹세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였는데, 지금 기복(起復)의 명(命)을 받게 되니 감히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작은 노고를 다하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상제(喪制)는 기한이 있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것인데, 갑자기 상복(喪服)을 벗게 되어 차마 하려고 하여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정성을 나타내어 두세 번이나 호소했지마는, 오히려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또 유시(諭示)하기를, '일의 중대한 것은 나라에서 다 함께 일컫는 바이다.' 하시니 더욱 또한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짐이 더할 뿐입니다.------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인자(仁慈)하심으로 가엾이 여겨 살펴서 신(臣)의 말이 한 몸만을 온전히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대신(大臣)들에게 물어 옳고 그름을 살피시어 특별히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어리석은 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끝)

5.훈민정음(한글) 창제와 최항(崔恒) 선생

우리는 보통 한글창제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연구하여 창제 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최항선생과 관련하여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창제에 어떻게 관여 했는지 알아보자.
한글창제에 관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집현전 학사들은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이다. 첨부한 집현전 8학사 표에서 보는바와같이 1434년(세종16년) 최항선생이 26세로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장원급제한 당일로 선교랑 집현전 부수찬에 제수하였다. 당시 정인지는 39세로 이조참판 이시고 박팽년은 18세로 알성문과에 급제 함으로써 집현전에 들어왔다. 신숙주는 1438(세종 20년)에 진사급제, 성삼문은 1438년(세종 20년) 식년문과에 급제, 강희안은 1441년(세종23년) 식년문과에 급제, 이개는 1436년 사마시에 합격,이선로는 1438년(세종 20년) 식년문과에 급제 하였다.
이후 소장음운학자의 선임관인 최항선생께 세종대왕이 직접 훈민정음창제에 관한 밀지를 내렸다.
이후 최항선생은 훈민정음창제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소장파 학자들을 이끌게 되고 당시 총책임자는 형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한 정인지가 맡았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기까지 최항선생의 집현전내 직책을보면 집현전 부수찬을 시작으로 집현전 수찬, 집현전 부교리, 집현전 교리 그리고 훈민정음

반포때도 집현전 응교의 직책을 역임 하였다.
정인지외의 다른 소장파 학자들이 최항선생보다 나이가 젊으시고 직책도 낮은 것으로 보아 최항선생께서 한글창제에관한 집현전 학사들의 실무책임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위해 선생에 관한 배려는 세종실록에 왕께서 1441년(세종23년) 부교리 최항과 전현감 정중건이 안질을 앓자 전의감정 배상문에게 명하여 평산 온전(황해도 평산온천)으로 가서 목욕학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게 하였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 훈민정음 연구에 기울인 최항선생의 정성과 세종대왕의 문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품을 엿볼 수가 있다.
최항선생은 장원급제 당일로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에 특채된 이래, 세종32년(1450) 세종대왕께서 승하(昇遐:임금님이 돌아가심)하실 때 까지 16여년간을 집현전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전념(專念)하였다. 당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 운회언해 , 동국정운등 각종 한글창제 관련 서적을 저술하시고 특히 용비어천가는 정인지 선생이 서문(序文)을 쓰시고 최항 선생이 발문(跋文)을 쓰셨다.
훈민정음 창제(創制)에 관하여 세종대왕의 특지(特旨)까지 받으시고, 오로지 집현전에서 8학사와 더불어 불철주야 연구한 함으로서 세종25년(1443)에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시키고 세종28년(1446년)반포할수 있었던 것은 최항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할수 있었던 것이다.

3. 崔 恒(최 항) 先生(선생)의 생애와 주요업적

최 항(崔 恒)선생은 조선조 제 3대 임금이신 태종9년(1409) 12월에 옛 삭녕(朔寧 ; 현 연천군 및 철원군) 땅에서 출생하여 세종16년(1434)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서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즉시 집현전 부수찬으로 제수된 이래 계속 관직에 재임 중 제9대 성종5년(1474)에 서거하신 조선조 초기의 탁출(卓出)한 문신(文臣)으로서 육조(六朝 ;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조)에 걸쳐 40여년간을 오직 내직(內職)에서만 벼슬하였으며, 그동안 단 한번도 탄핵(彈劾)을 받은 일이 없었고, 공신록(功臣錄)에 세 번이나 기록된 충신(忠臣)으로서 관직(官職)은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하였다.

성종 5년 3월에 좌의정(左議政)으로 복배(復拜)되어 재임 중 4월28일 향년(享年) 66세로 서거(逝去)하시니 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기현(丌峴)에 예장(禮葬)하였다.

선생의 산소는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선생의 자(字)는 정보(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幢梁), 군호(君號)는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본관(本貫)은 삭녕(朔寧)이다.

선생은 세종 16년(1434)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함으로써(26세) 그 학문(學問)의 심박(深博)함이 인정되어 세종대왕께서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에 특수 [特授 : 특별히 제수(除授)] 된 이래, 세종32년(1450), 세종대왕께서 승하(昇遐 ; 임금께서 돌아가심)하실 때까지 16여년간을 집현전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전념(專念)하시었다. 훈민정음 창제(創制)에 관하여는 세종대왕의 특지(特旨)까지 받으시고 그 수석연

구관(首席硏究官)으로서 창제에 참여한 집현전 8학사들과 더불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주도적(主導的)으로 연구한 결과 세종 25년(1443)에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시킴으로써 동 왕 28년에 반포되었으며, 또한 동국정운(東國正韻), 자치강목(自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 동국통감(東國通鑑),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국가 통치의 근간(根幹)이 되는 많은 저술(著述)을 비롯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 40여 권을 찬술(撰述)하시었고 태허정 시집(太虛亭 詩集)에는 200여 편의 각종 시문(詩文)이 실려 있으며 2권의 태허정 문집(太虛亭 文集)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술 [서(序)·기(記)·좌목(坐目)·발류(跋類)·서류(書類)·표류(表類)·전류(箋類)·소류(疏類)·제문류(祭文類)·비명류(碑銘類)·찬류(贊類)·보유(補遺)·행적(行蹟)] 등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어제의 서(御製序), 경서의 발(經書跋), 왕지의 서(王旨書) 국서의 표문(國書表文), 전문(箋文), 고문전책(高文典冊)의 진전문(進箋文), 임금과 왕실의 만장(挽章), 비명(碑銘),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는 바, 조정(朝廷)의 웅문대책(雄文大冊)은 모두 선생의 손에서 나왔으며, 화인(華人)들도 항상 우리나라의 표사(表詞)가 정밀하며 적절하다고 칭찬할만큼 선생의 문장은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이 막힘이 없는 탁출(卓出)한 문장이었다(원문; 華人每稱我國表詞精切)

또한 선생은 시문(詩文)에도 능통(能通)하여 궁중종묘제례악(宮中宗廟祭禮樂)의 악장가사(樂章歌詞)까지도 작사(作詞)하였고, 변려문(騈儷文 ; 四六文)에 정통하는 등 문장의 재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임금은 선생을 「진천재(眞天才)」 또는 「유웅(儒雄)」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 정직하여 선생이 서거(逝去)하심에는 조정의 사대부(士大夫)로부터 우동마졸(牛童馬卒)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애석하여 마지않았으며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崔 恒 선생의 문집(文集)인 태허정집(太虛亭集)의 기록〕

그리하여 조정(朝廷)에서는 선생의 시호(諡號)를 문정(文靖)이라 내렸으니 「도덕(道德)이 높고 박학다식(博學多識)하니 문(文)이요,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으니 정(靖)이라 한다」하였다.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創制)함에 있어서 집현전(集賢殿)의 원로(元老)들을 배제(排除)시키고 소장 음운학자(小壯音韻學者)의 선임관(先任官)인 최 항(崔 恒)선생에게 특지〔特旨 : 밀지(密旨)〕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선생의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을 높이 평가하신 결과라고 하겠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반포(創制頒布)하기까지의 어려움은 세종실록의 반대 상소문(上疏文)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며 당시에 기존(旣存)의 제도(制度)를 고수(固守)하려는 세력을 물리치고 신문자(新文字)를 창제하여 정착(定着)시키는데는 실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나 이를 타파(打破)하고 성취(成就)시켰음은 세종대왕의 굳은 결단력과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위한 연구(硏究)의 중요성과 최 항(崔 恒) 선생을 배려(配慮)하신 세종실록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종실록 제 92권 23년(1441) 12월 9일 丁未조≫

『丁未副校理崔恒 前縣監鄭仲陵 有眼疾 命與典醫監正裵尙文 浴于平山溫井試驗』

[해설]

『초 9일 부교리(副校理) 최 항(崔 恒)과 전현감(前縣監) 정중건(鄭仲陵)이 안질(眼疾)을 앓고 있으므로 전의감정(典醫監正: (正三品官) 배상문(裵尙文)에게 명하여 평산 온정(平山溫井: 황해도 평산온천)으로 가서 목욕하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게 하다.』

이 실록의 내용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완성(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 근거)되기 약 2년 전의 일이며 이 내용에서 훈민정음 연구(訓民正音

硏究)에 기울인 최 항선생의 정성과 세종대왕의 문신(文臣)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품(人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최 항(崔 恒)선생에 관한 왕조실록 및 태허정 문집(太虛亭文集)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선생은 도덕(道德)이 높고 박학다식(博學多識)하며 천품(天稟)이 어질고 겸손하여 항상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었으며 언제나 신중하여 삼사일언(三思一言)과 삼사일행(三思一行)을 실천하였다. 비록 한 더위에라도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온종일 예의에 벗어난 용모(容貌)를 보이는 일이 없었으며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독서(讀書)에 탐닉(耽溺)하였고 특히 기억력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난 날에 이처럼 훌륭한 선조들의 음덕(蔭德)으로 오늘날 우리가 불편없이 문자생활(文字生活)을 하고 있으며 세계만방에 문화 민족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선생은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탁출(卓出)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행(孝行) 역시 탁이(卓異)한 선비였으니 1458년(세조4년, 50세때)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시묘(侍墓 : 부모의 거상중에 무덤옆에 막을 짓고 3년 동안 지내는 일)살이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1459. 4. 28에 임금께서 기복(起復 : 관직에 복귀)을 명(命)하였으나 그 명령이 자식된 도리는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는 일로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글을 3회(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에 걸쳐 왕에게 상서한 내용 즉 '기복불응상서문(起復不應上書文)'이 조선왕조(세조)실록에 실려있다(同 상서문은 뒤에 첨부)

옛부터 효행(孝行)은 모든 덕행(德行)의 근본(孝百行之本; 효백행지본)이라는 말이 전하는 바 아마도 최 항(崔 恒)선생의 행적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선생의 이 모든 업적과 덕행은 인륜과 도덕이 무너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들 모두가 본 받아야 할 참다운 교훈(敎訓)으로서 그 업적을 길이길이 추모 현양함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한글날에 대하여 부언한다면 앞으로 한글날이 참다운 국경일로 존중되어 한글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한(韓)민족에게 훈민정음(→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여 보시라! 참으로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더구나 한글은 세계의 모든 문자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서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하게 일용(日用)할 수 있는 글자이니 그 창제 반포의 기쁨과 새로운 고유문자를 갖게 된 민족적 자긍심(自矜心)을 어디에 비기랴!

훈민정음(訓民正音→한글)의 창제는 참으로 우리 한(韓)민족이 문화민족임을 세계만방에 과시(誇示)하고 선양(宣揚)한 쾌거(快擧)인 것이다.

한글은 한(韓)민족의 선조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지혜의 산물, 억만년 길이 빛날 민족의 등불이어라.

7.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 선생의 저술일람표

순서	연도	왕조	저서명	(저서명)	보고
1	1434	세종 16년	資治通鑑訓義	(자치통감훈의)	편찬 참여 52人
2	1444	세종 26년	五禮儀注	(오례의주)	선생 撰進(찬진)
3	1444	세종 26년	韻會諺譯	(운회언역)	집현전 학사6人 참여
4	1446	세종 28년	訓民正音原本	(훈민정음 원본)	집현전 8학사 참여
5	1446	세종 28년	訓民正音解例	(훈민정음해례)	집현전 8학사 참여
6	1446	세종 28년	東方語音	(동방어음)	선생 撰述(찬술)
7	1447	세종 29년	龍飛御天歌	(용비어천가)	참여 11人(補修 8人)
8	1447	세종 29년	東國正韻	(동국정운)	撰修 참여 9人
9	1451	문종 1년	大學衍義注釋	(대학연의 주석)	선생 註解(주해)
10	1451	문종 1년	高麗史 列傳	(고려사 열전)	선생 撰修(찬수)
11	1451	문종 1년	資治綱目	(자치강목)	선생 撰修(찬수)
12	1451	문종 1년	痛鑑訓義	(통감훈의)	선생 撰修(찬수)

13	1454	단종 2년	世宗壯憲大王實錄	(세종장헌대왕실록)	편찬 참여 54人
14	1454	단종 2년	功臣宴曲	(공신연곡)	선생 撰進(찬진)
15	1455	단종 3년	文宗實錄	(문종실록)	편찬 참여 47人
16	1457	세조 3년	初學者會諺注	(초학자회언주)	선생 撰修(찬수)
17	1458	세조 4년	新六典初案作成	(신육전초안작성)	撰修 참여
18	1459	세조 5년	十二駿圖	(십이준도)	선생 撰修(찬수)
19	1459	세조 5년	明皇誡鑑歌詞諺譯	(명황계감가사언역)	先生 언역
20	1460	세조 6년	兵書註解	(병서주해)	先生 주해
21	1460	세조 6년	孫子註解(校正)	(손자주해교정)	先生외 9人
22	1461	세조 7년	蠶書諺解	(잠서언해)	양성지 著를 선생 언해
23	1461	세조 7년	北征錄 校正	(북정록 교정)	先生외 8人
24	1461	세조 7년	觀音賢相記	(관음현상기)	선생 撰修(찬수)
25	1461	세조 7년	訓辭註解	(훈사주해)	世祖 訓辭(세조훈사)
26	1462	세조 8년	東國通鑑	(동국통감)	徐居正과 供饌(서거정과 공찬)
27	1463	세조 9년	兵書新主	(병서신주)	선생 校正(교정)
28	1463	세조 9	御製諭將說	(어제유장설주	申叔舟共註(신숙

		년	註解	해)	주 공주)
29	1463	세조 9년	定大業·保太平歌詞	(정대업·보태평 가사)	선생 改作 (개작)
30	1464	세조10년	靖難日記	(정난일기)	선생 撰述(찬술)
31	1464	세조10년	兵將說註(刪定)	병장설주(산정)	선생 撰述(찬술)
32	1465	세조11년	小學, 四書五經 口訣	(소학, 사서5경 구결)	口訣을 定함
33	1467	세조13년	行軍須知註	(행군수지주)	先生외 3人
34	1467	세조13년	北征歌詞	(북정가사)	3章 撰進(3장 찬진)
35	1468	세조14년	御馬法諺解	(어마법언해)	先生외 3人
36	1469	예종 1년	武定寶鑑	(무정보감)	선생 撰述(찬술)
37	1469.11월	성종즉위년	經國大典	(경국대전)	撰進(찬진)
38	1470	성종 1년	歷代帝王后妃明鑑	(역대제왕후비 명감)	선생 撰進(찬진)
39	1471	성종 2년	懿敬廟玉冊文	(의경묘옥책문)	3章 撰進(3장 찬진)
40	1471	성종 2년	世祖實錄	(세조실록)	편찬 참여 11人
41	1472	성종 3년	睿宗實錄	(예종실록)	편찬참여 46人

1. 세종대왕과 黃龍現夢
(황 룡 현 몽)

-文靖公 崔 恒 선생에 얽힌 일화(逸話)-

광해군 때의 학자인 어우당 유몽인(於于堂 柳夢寅)이 지은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종대왕께서 왕16년(1434 甲寅)에 천하의 인재(人材)를 뽑기 위하여 알성시(謁聖試)를 세상에 공포하고 과시(科試) 전날 잠깐 오수(午睡)에 잠기셨다. 그런데 꿈속에서 과장(科場)인 성균관 대성전(成均館 大成殿) 서편의 잣나무에 큰 황룡(黃龍) 한 마리가 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나신 뒤에 하도 이상한 꿈인지라 세종대왕께서 범상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관(內官: 내시)을 보내어 살펴보게 한즉, 한 선비가 괴나리 봇짐을 베개삼아 그 잣나무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과시일(科試日)을 당하여 알성문과(謁聖文科)의 시험(試驗)을 치르고 세종대왕께서 예에 따라 장원급제한 사람을 불러 만나보니 다름아닌 꿈 속에서 황룡으로 현몽하여 확인하였던 그 선비였으니 그가 바로 최 항(崔 恒) 선생이었으며 세종대왕으로부터 즉시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 從六品官)에 제수(除授:천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되었다. 그 뒤부터 이 잣나무는 장원백(壯元柏)이라고 불리었으며, 이후부터 과거를 앞둔 선비들이 일부러 이 장원백이라 일컫는 잣나무 밑에 와서 낮잠을 자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이후 최 항(崔 恒) 선생은 16여년간을 계속하여 집현전에서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으며 세종대왕으로부터 훈민정음(한글)제작의 특지(特旨)를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탄생케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문화적 업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세종대왕의 꿈에 대학자(大學者)인 최 항(崔 恒) 선생이 황룡(黃龍)으로 현몽(現夢)한 사실은 문자 [文字: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글] 의 창제를 암시(暗示)한 사건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 世宗大王과 崔 恒 선생
세 종 대 왕 최 항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創制)는 세종대왕이 집현전(集賢殿) 학사인 최 항(崔 恒),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등 소장학자(小壯學者)들의 協贊으로 이룩된 것으로 세종대왕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유산(遺産)임에 틀림이 없다.

세종대왕은 1420년(세종 2)에 종래에 있던 집현전(集賢殿)·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 중에서 집현전만을 남기고 이 기구를 확장하고 우수한 인재(人材)를 발탁(拔擢)하여 집현전 관원(集賢殿 官員)으로 임명, 사가독서(賜暇讀書) 등의 특전을 주어 학문(學問)에만 전념(專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곳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시관(試官)·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 등의 직책을 겸임하였고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에 동원되는 등 그들의 직무(職務)는 주로 학술적(學術的)인 것이었다.

세종대왕은 이들 중 우수한 인재(人材)는 학술로써 종신(終身)할 것을 희망하여 집현전에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쟁쟁한 학자(學者)를 많이 배출하였는데 이러한 인적자원(人的資源)이 바로 세종 때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創制) 등 찬란한 문화(文化)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은 실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화창달(文化暢達)을 주도(主導)하신 성군(聖君)으로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인재(人材)로 하여금 집현전에서 더욱 학문을 연구케 함으로써 집현전(集賢殿)을 그 시대의 문화발전(文化發展)의 진원(震源)으로 삼았다.

세종대왕은 왕(王) 16년(1434)에 실시한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최 항(崔 恒) 선생을 발탁(拔擢)하여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 從六品官)에 특수〔特授 : 특별히 제수함 → 제수(除授)란 천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직을 임명함을 말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초임관(初任官)이 9품관(九品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종 6품관이란 매우 파격적(破格的)인 제수(除授)로써 이는 세종대왕께서 최 항(崔 恒) 선생이 지닌 심박(深博)한 학문(學問)과 준수(俊秀)한 인품(人品)을 발견하시고 내리신 결단으로 이해된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創制)함에 있어서 집현전(集賢殿)의 원로(元老)들을 배제(排除)시키고 소장 음운학자(少壯 音韻學者)의 선임관(先任官)인 최 항(崔 恒) 선생에게 특지(特旨)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선생의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을 높이 평가하신 결과라고 하겠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반포(創制頒布)하기까지의 어려움은 세종 실록의 반대 상소문(上疏文)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며 당시에 기존(旣存)의 제도(制度)를 고수(固守)하려는 세력을 물리치고 신문자(新文字)를 창제하여 정착(定着)시키는데는 실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나 이를 타파(打破)하고 성취(成就)시켰음은 세종대왕의 굳은 결단력과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위한 연구(硏究)의 중요성과 최 항(崔 恒) 선생을 배려(配慮)하신 세종실록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종실록 제 92권 23년(1441) 12월 9일 丁未조≫

『丁未副校理崔恒 前縣監鄭仲虔 有眼疾 命與典醫監正裴尙文 浴于平山溫井試驗』

[번역문]

『초 9일 부교리(副校理) 최 항(崔 恒)과 전현감(前縣監) 정중건(鄭仲虔)이 안질(眼疾)을 앓고 있으므로 전의감정(典醫監正:正三品官) 배상문(裴尙文)에게 명하여 평산 온정(平山溫井 : 황해도 평산온천)으로 가서 목욕

하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게 하다.』

이 실록의 내용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완성(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 근거)되기 약 2년 전의 일이며 이 내용에서 훈민정음 연구(訓民正音研究)에 기울인 최 항 선생의 정성과 세종대왕의 문신(文臣)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품(人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최 항(崔 恒) 선생에 관한 왕조실록 및 태허정문집(太虛亭文集)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선생은 도덕(道德)이 높고 박학다식(博學多識)하며 천품(天稟)이 어질고 겸손하여 항상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었으며 언제나 신중하여 삼사일언(三思一言)과 삼사일행(三思一行)을 실천하였다. 한더위에도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온종일 예의에 벗어난 용모(容貌)를 보이는 일이 없었으며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독서(讀書)에 탐닉(耽溺)하였고 특히 기억력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세종조(世宗祖) 때부터 성종조(成宗朝)에 이르기까지 내직(內職 : 京職)으로만 여섯 분의 임금(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을 모시면서 「입조(立朝)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탄핵(彈劾)을 받은 일이 없었다」하니 참으로 경탄(敬歎)치 않을 수 없으며 이것으로도 선생의 학덕(學德)과 인품(人品)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 날에 이처럼 훌륭한 선조들의 음덕(蔭德)으로 오늘날 우리가 불편없이 문자생활(文字生活)을 하고 있으며 세계 만방에 문화 민족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崔 恒 先生과 丙子士禍〔死六臣 사건〕

병자사화(丙子士禍)란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2년(1456)에 상왕(上王)인 단종(端宗)의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일어난 사화(士禍 ; 死六臣사건)로써,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 개(李 塏)·유응부(兪應孚)·유성원(柳誠源) 등 6명의 충신(忠臣)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단심(丹心)으로 세조(世祖)에 항거하다가 참혹한 고문을 받고 처형 또는 자결한 사건이다.

조선왕조세조실록에 의하면 최 항(崔 恒)선생은 병자사화 전년(前年)인 세조 원년(1455) 8월 18일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휴직(休職)하고 여소(廬所: 묘막)에서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병자사화(丙子士禍)에서 피화(被禍)를 면하였다.

• 1455년(端宗 3, 閏 6월　世祖卽位, 47세)

대사헌(大司憲) 최 항(崔 恒)이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다.(8월 18일) 임금께서 명하여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 관곽(棺槨), 종이 100권, 석회 40석, 유둔(油芚) 3부(三部)를 내렸다. (근거 : 世祖 券二 元年乙亥 八月 (18日, 辛酉)

○임술(壬戌): 8월 19일 노 숙동(盧叔仝)을 대사헌으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崔 恒선생은 母親의 喪中이므로 휴직(休職)) 시묘살이.)

• 1456년 (세조(世祖)2, 48세)6월 14일 (壬子)

사알(司謁) 장말동(張末同)에게 명(命)하여 선온(宣醞)과 소선(素膳)을 가지고 가서 前 대사헌(大司憲) 최 항(崔 恒)의 여소(廬所 : 廬墓)에 내려주게 하였다. (이 해에는 端宗復位의 정변이 있었음.)

崔 文靖公 碑銘 幷序(아울러 序說을 붙임)

徐 居 正 撰

성악(星嶽)의 기(氣)는 사람에게 뭉치어 영웅(英雄)과 호걸(豪傑)이 되고, 대개 장경성(長庚星)의 정기와 아미산(峩眉山)의 신(神)이 강림하여 한 시대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문장(文章)은 족히 하늘을 환하게 비추며 돌고 초목(草木)에까지 널리 혜택을 입힐 만하며, 그 공업(功業)은 족히 제왕(帝王)의 계책(計策)을 화려하게 돕고 치화(治化)를 바로잡아 세울 만하며, 이로운 혜택은 한때에 시행되고 명성(名聲)은 후세까지 빛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상서로운 기린(麒麟)과 봉황(鳳凰)처럼 세상에 사이를 두고 나오는 것이니, 영성(寧城) 최 문정공(崔 文靖公)은 그에 거의 가까울 것이다. 공의 휘(諱)는 항(恒)이요, 자는 정보(貞父)이며, 삭녕인(朔寧人)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충(忠)인데 최윤문(潤文)을 낳고, 최윤문은 최사유(崔士柔)를 낳으니, 공(公)에게는 황고(皇考 아버지)가 되는데, 관후(寬厚)한 장자(長者)로 나이 18세에 기사년(己巳年 1389년 공양왕 원년)의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의 두 과거에 연해 합격하고, 임오년(壬午年 1402년 태종 2년)의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대간(臺諫)·낭조(郎曹)를 지내고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까지 이르렀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고는 날마다 경사(經史)를 읽으면서 스스로 즐겼다. 나이 팔질(八秩 80세)이 넘었으나 강강(康强)하여 병이 없었으며, 아손(兒孫)들을 시례(詩禮)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최군장(崔君長)께서는 큰 학식이 있으나 크게 쓰이지 아니했으니, 그 홍성함이 마땅히 후사(後嗣)에게 있을 것이다." 하였다. 배위(配位)는 오씨(吳氏)로, 종부시 판사(宗簿寺判事) 오혁충(吳奕忠)의 따님이다. 영락(永樂 명(明)나라 성조(成祖)의 연호) 기축년(己丑年 1409년 태종 9년) 12월 임진일(壬辰日)에 공을 낳았다. 공은 이를 갈 무렵부터 총명이 무리에서 뛰어났고 글을 읽을 줄 알면서는 스스로 열심히 힘써서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여 크게 얻은 바가 있어서 글을 잘 지었는데, 뜻이 대단히 넓고 기상이 뛰어나 작자(作者)의 기풍이 있었다. 선부군(先父君 돌아가신 아버지, 곧 최사유)께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골법(骨法)이 보통 사람과 다르니, 끝내 소성(小成)할 자는 아니다. 하늘이 혹시 우리 가문을 크게 일으키려는 것일까?" 하였다.

선덕(宣德 명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갑인년(甲寅年 1434년 세종 16년)에 영릉(英陵 세종)께서 성균관 문묘(文廟)에 임어하여 책문(策問)으로 선비를 뽑으실 때 공을 장원으로 발탁하여 선교랑

(宣敎郎)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지제교(知製敎)·경연 사경(經筵司經)을 제수하여 ≪자치강목통감훈의(資治綱目通鑑訓義)≫를 편수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였다. 지재(止齋) 권 문경공(權文景公, 이름은 제(踶)) 이 매우 소중히 여기어 누이의 딸로 아내를 삼게 했는데, 항상 저술(著述)을 보고는 감탄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체(文體)가 시들고 활기가 없어서 날로 비하(卑下)해지는데, 능히 고문(古文)을 드러내어 떨쳐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하고, 의발(衣鉢)[1]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글귀가 있으니, 이것은 노공(魯公) 범질(范質)의 고사(故事)[2]를 인용한 것이다. 지재(止齋) 또한 갑오년(甲午年 1414년 태종 14년)에 대괴(大魁 장원)를 한 사람이다.

세종께서 사국(史局)을 열고 신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게 하였는데, 공 또한 찬수에 참여하였다. 현릉(顯陵 문종)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 영릉께서 명유(名儒)를 가려서 궁관(宮官)에 보충했는데, 공이 첫머리로 간발(簡拔)되어 좌사경(左司經)이 되었으며, 부수찬(副修撰)에서부터 여러 번 옮기어 직전 겸 예문관 응교(直殿兼藝文館應敎)에 이르렀다. 세종께서 처음 언문(諺文)을 창제하실 때 신기한 생각과 예지(睿智)가 백왕(百王)에 뛰어나셨는데, 집현전의 모든 선비들이 말을 모아 불가(不可)하다 아뢰었고, 심지어 상소를 올려 극론(極論)하는 자까지 있었다. 세종께서는 공과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과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의 책을 만들게 하니, 우리 동방의 말과 소리가 비로소 바로잡혔는데, 비록 규모와 조치(措置)는 모두 예지(睿旨)를 받은 것이지만 공의 협찬(協贊) 또한 많았다.

정묘년(丁卯年 1447년 세종 29년) 복시(複試)에서 제5명(第五名)으로 합격하여 직제학(直提學)에 제수되고 세자 우보덕(世子右輔德)이 되었으며 봉정 대부(奉正大夫)의 품계(品階)에 올랐다. 이 때에 세종께서 정사(政事)에 고달파 문종이 〈세자로서〉 감무(監撫) 하였는데, 〈공을〉 서연관(書筵官)으로 삼아 영지(令旨)의 출납(出納)을 맡게 하니, 공이 마음속에 생각한 바를 계도(啓導)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게 하였으므로, 보익(補益)함이 넓고 많았다. 세종께서 신(臣) 김문(金汶)·김구(金鉤)와 공 등에게 명하여 소학(小學)과 사서 오경(四書五經)의 구결(口訣)[3]을 정하게 하였을 때는 서거정(徐居正)도 또한 그분들

---

1) 의발(衣鉢) : 불가(佛家)에서 전법(傳法)의 표시로 주는 가사(袈裟)와 바리때[鉢]. 일반적으로 사제간(師弟間)에 도(道)를 전수(傳授)하는 것을 지칭함.

2) 당(唐)나라 고사(故事)에 과거 시험을 관장한 자[座主]가 자신의 급제(及第)할 때의 명차(名次)를 소중히 여기어, 급제한 자[門生]의 우수한 글을 취하여 자신과 동일한 명차에 두었는데, 오대(五代)의 후당(後唐) 때 재상 화응(和凝)은 자신이 지공거(知貢擧)일 때 급제한 범질(范質)을 자신의 등제시(登第詩) 명차였던 제13번째에 두고는 이르기를, "그대의 글이 여러 선비들 중에 으뜸이나 굽히어 제13번째에 둔 것은 이 늙은이의 의발(衣鉢)을 전하려 함이다."라고 한 일. 뒤에 범질은 화응처럼 재상이 되고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음.

3) 구결(口訣) : 우리 나라에서 문장의 한 구절(句節)마다 그 뜻에 약호(略號)로써 다는 토(吐). '하고'를 '고'로,

뒤에 참여하면서 늘 여러분들의 강론(講論)이 같지 아니함을 보았는데, 공의 이론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여러분들이 모두 공의 의견을 추대하고 자신들은 양보하였다. 문종께서 즉위하자 사간원 좌사간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를 제수하고, 신미년(辛未年 1451년 문종 원년)에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에 올라 ≪세종실록(世宗實錄)≫을 찬수(撰修)하였다. 임신년(壬申年 1452년 문종 2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발탁되고 이어서 좌부승지로 옮겼다. 문종께서 승하(昇遐)하시자 유충(幼沖 단종을 지칭함)이 왕위에 계시어 나라의 형세가 의심이 일어나 위태롭게 되자, 공이 좌우의 유밀(宥密)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주선(周旋)하여 왕명의 출납을 오직 삼갔는데, 계유년(癸酉年 1453년 단종 원년)에 광릉(光陵 세조)께서 기미(幾微)에 밝아 정난(靖難)할 때는 공이 마침 대궐 안에 직숙(直宿)하게 되어서 협찬(協贊)의 공이 또한 많았으므로 도승지(都承旨)로 승진되었으며, 얼마 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갑술년(甲戌年 1454년 단종 2년)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고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으며,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이듬해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겨졌으며, 세조께서 정사를 보필하자 역당(逆黨)들이 지난날의 감정을 품고 몰래 내수(內竪)와 결탁하여 온갖 꼬투리로 틈을 엿보다가 비록 일이 탄로되어 처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남은 무리가 근거지를 굳히고 있어 아직도 다 제거하지 못했었는데, 공이 옛사람의 의리를 끌어다 의거하여 이로움과 해로움을 적절하게 설명하며 수십 가지 일을 아뢰어서 모두 윤허(允許)함을 받았다. 6월에 세조께서 즉위하자 좌익 공신(左翼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가을에 내우(內憂 어머니의 상고(喪故))를 당하여 정축년(丁丑年 1457년 세조 3년)에 복(服)을 마치자, 호조 참판에 제수되고 얼마 뒤 이조(吏曹)로 옮겼다. 무인년(戊寅年 1458년 세조 4년)에 승진하여 형조 판서가 되고 또 공조(工曹)로 옮겼으며, 자헌 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창릉(昌陵 예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서연(書筵)을 열었는데, 세조께서 말하기를, "저사(儲嗣 세자(世子))의 덕(德)을 보양(輔養)하는 데는 노성(老成)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공을 명하여 빈객(賓客)을 삼았다. 겨울에 외우(外憂 아버지의 상고(喪故))를 당하였는데, 이듬해에 기복(起復)[4]을 명하므로, 공께서 세 번이나 글을 올려 삼년상의 예제(禮制)를 마치게 해 줄 것을 청하면서 말이 매우 간곡하고 극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중추원사(中樞院使)를 제수했다.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겸직하고 정헌 대부(正憲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세조께서 친히 훈사(訓辭 훈계의 말씀)를 지어서 예종에게 주면

'하야를 '亏'로 표기하는 따위.

4)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는 관리가 탈상(脫喪)하기 전에 국가에서 필요로 인하여 상제(喪制)의 몸으로 출사(出仕)케 하는 일.

帝王后妃明鑑)≫을 지어서 올렸으며, 신묘년(辛卯年 1471년 성종 2년)에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이해 겨울에 다시 상부(相府)로 들어가 좌의정이 되고 경연 춘추(經筵春秋)를 겸하여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을 찬수하여 올렸는데, 금상께서 안마(按馬, 안장을 갖춘 말)를 하사하시어 칭찬하며 권장하였다. 계사년(癸巳年 1473년 성종 4년) 여름에 큰 수재(水災)가 나자 공께서 '음양(陰陽)이 조화(調和)를 잃은 것은 그 책임이 삼공(三公)에게 있다'고 하여 사직을 매우 간절하게 청원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474년 성종 5년) 여름 4월에 공이 차츰 몸에 조화를 잃었는데, 28일 임오(壬午)에 관대(冠帶)를 갖추고 관아(官衙)에 나가려다가 갑자기 병이 위중하자, 금상께서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을 가지고 치료하게 하였으나 효험 없이 드디어 졸(卒)하니, 향년(享年)이 66세였다. 금상께서 크게 슬퍼하여 증부(贈賻)를 더하고, 태상시(太常寺)에서 시호(諡號)를 의정하기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이해 윤유월(閏六月) 임인일(壬寅日)에 광주군(廣州郡)의 동쪽 기현(仟峴) 손좌 건향(巽坐乾向)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공이 서거하자 조정의 사대부(士大夫)에서 소 먹이는 아이와 말 모는 하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이 죽었다'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성품이 겸손하고 공순하며 간이(簡易)하고 고요하며 단정하고 개결(介潔)하여 번화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아가 처신함에 있어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했으며, 평상시에 비록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라도 온종일 의관(衣冠)을 반듯하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록 순간적이라도 조급하게 말을 하거나 당황한 낯빛을 짓지 않았으며, 공사(公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도(正道)를 지키고 나라를 근심하기를 내집과 같이 하였다. 두 번 정승이 되었으나 정무(政務)가 관대하여 고치어 새롭게 하기를 즐기지 아니했다. 사람들과 더불어 말할 때는 항상 먼저 겸손을 보이어 스스로 겉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모나게 자기 주장을 세워 스스로 다르게 하지 않았으나, 조정 논의에 있어서 대사(大事)를 결정할 때는 확고하여 범할 수 없었고, 집에 있을 때는 청백하여 뇌물을 보내어 청탁하는 일이 이르지 않았으며, 성색(聲色)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고 산업(産業)을 일삼지 아니하여 담박하였다. 일을 당해서는 항상 세 번 생각을 더했고 조정에 선지 40년에 한번도 공적인 탄핵을 받지 않았으며, 등제(登第)하면서부터 정승에 이르도록 항상 관각(館閣)[5]의 직을 겸했었고, 일찍이 하루도 외직(外職)에 나간 일이 없었다. 개연(慨然)히 사도(斯道 유도(儒道))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옛사람의 일정한 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문사(文辭)를 얽는 솜씨를 내어서 크게 뜻을 방충

5) 관각(館閣) : 경연청(經筵廳)·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의 총칭.

서 공에게 주해(注解)를 명했는데, 공이 조목마다 나누어 주해하여 절목(節目)을 자세하게 다하였으며, 또 제유(諸儒)의 학설을 인용하여 논단(論斷)하니, 훈사의 뜻이 통창(通暢)하여 임금께서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였다. 경진년(庚辰年 1460년 세조 6년)에 이조 판서로 승진하고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계미년(癸未年 1463년 세조 9년)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옮겨졌으며, 이듬해에 승진하여 좌참찬이 되어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다. 세조께서 일찍이 "동방의 학자들의 어음(語音)이 정확하지 못하고 구두(句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록 권근(權近)과 정몽주(鄭夢周)의 구결(口訣)이 있으나 오류(誤謬)가 오히려 많아 낡은 사상을 가진 쓸모없는 유생과 속된 선비들이 잘못을 전하고 그릇됨을 이어 간다"고 탄식하시면서, 드디어 신(臣) 정인지·신숙주·구종직(丘從直)·김예몽(金禮蒙)·한계희(韓繼禧) 및 공과 신 서거정 등에게 오경과 사서를 나누어 주시며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증거하여 구결을 정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세조께서 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으시고 강론이 동일하지 않는 것에 친히 예재(睿裁 임금의 결재)를 가하셨는데, 공이 좌우에 있으면서 매양 고문(顧問)을 받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응대(應對)함이 소리에 메아리가 따르듯 하고 모두 중의(衆意)에 만족하였으므로, 세조께서 좌우에게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천재(天才)로다." 하였다.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 12년)에 승록 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라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하게 하였는데, 공께서 사양하기를, "군사에 관한 기무(機務)는 신과 같이 어둡고 쓸모없는 선비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좌찬성(左贊成)에 승진시키고 보국 대부(輔國大夫)로 품계를 올려 주었으며, 정해년(丁亥年 1467년 세조 13년)에 대광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춘추관 감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春秋館監事)에 발탁되었고, 5월에 좌의정으로 옮겼으며, 9월에 영의정 겸 영예문관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사(領議政兼領藝文館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에 승진하였는데, 여러 번 '관작이 성만(盛滿)하다'면서 사양하였으나 도리어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에 봉하였으며, 무자년(戊子年 1468년 예종 즉위년)에 예종께서 즉위하자 영경연사(領經筵事)를 더하였다.

처음에 세조께서 공에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할 것을 명하여,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의 두 법전(法典)은 이미 편찬해 올렸으나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의〉 네 법전은 미처 완성을 고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다 편찬해 올리니, 예종께서 가상하게 여기시며 간행하여 반포할 것을 명하였다.

금상(今上 성종(成宗)을 지칭함)께서 즉위하시어 노성(老成)한 사람을 임용할 것을 계획하여 〈공에게〉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그대로 유임시키고는 날마다 마주하여 고문(顧問)하고 존경하는 예를 더욱 중하게 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470년 성종 원년)에 ≪역대제왕후비명감(歷代

하여 펴매, 그 내용이 웅호(雄豪)하고 풍부하여 장강(長江)과 대하(大河)가 도도(滔滔)하게 거침없이 흐르는 것처럼 백 번 꺾이고 구비쳐서 형세가 그칠 수 없는 것 같았다. 더욱 변려문(駢儷文)에 능하였고, 여러 번 과거 시험[文闈]을 관장하여 인재(人材)를 얻은 것이 성대하였으며, 무릇 조정의 사대(事大) 표·전문(表箋文)과 고문 대책(高文大冊)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화인(華人)들이 항상 우리 나라의 표사(表詞)가 정밀하고 적절하다고 칭찬하였는데, 모두 공이 저술한 것이다.

금상(今上)께서 바야흐로 책임을 맡겨 선치(善治)를 도모하려 했는데, 하늘이 억지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여 갑자기 이렇게 졸하기에 이르니, 애통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공께서 순충 보조 공신 보국 숭록 대부 달천 부원군(純忠補祖功臣輔國崇祿大夫達川府院君) 서미성(徐渼性)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봉해지니, 곧 서거정(徐居正)의 누님이시다. 2남 4녀(二男四女)를 낳았는데, 2남 중 맏이는 최영린(崔永潾)으로 임오년(壬午年 1462년 세조 8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 12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형조 참의(刑曹參議)가 되었으며, 둘째는 최영호(崔永灝)로 정유년(丁酉年 1477년 성종 8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도시정(司導寺正)이 되었다. 4녀 중 맏이는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정함(鄭涵)에게 출가했고, 둘째는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문간(文簡)에게 출가했으며, 셋째는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이균(李鈞)에게 출가했고, 넷째는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 신수(申銖)에게 출가했다. 최영린은 대호군(大護軍) 이효림(李孝林)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최수영(崔秀英)을 낳았고, 관찰사(觀察使) 박건순(朴健順)의 따님을 후취(後娶)로 맞아들여 2남을 낳았으니 최수웅(崔秀雄)과 최수걸(崔秀傑)이다. 최영호는 계림군(鷄林君) 정효상(鄭孝常)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다. 정함은 2남 2녀를 낳았고, 문간은 2남 3녀를 낳았으며, 이균은 1녀를 낳았고, 신수는 1남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아! 서거정이 어찌 차마 공의 묘비(墓碑)에 명(銘)을 쓸 것인가? 처음 공이 우리 집에 장가 왔을 때 서거정의 나이 아직 어렸는데, 내가 일찍 아버지를 여읜 것을 가엾게 여기어 직접 친절하게 가르쳐서 나의 몽매(蒙昧)함을 깨우쳐 주었으며, 서거정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자 현자(賢者)들이 모인 곳에 10년 동안을 관료로 있게 하였고 또 관각(館閣)에서 수십여 년을 모시었는데, 서거정이 재주 없는 처지에 공의 뒤를 이어서 사문(斯文 유학(儒學))의 주맹(主盟)이 되니, 의발(衣鉢)을 한 집에 전하였다고 당시의 사람들이 칭찬하나,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공은 부끄러움이 없다. 아! 서거정이 어찌 차마 공의 묘비에 명을 쓸 것인가? 명(銘)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하여 엉기고 규성(奎星)과 벽성(壁星)이 밝게 돌아서, 원기(元氣)

가 분리되지 않고 섞여 하나로 되어 이러한 기재(奇才)가 태어났다. 당당(堂堂)한 영성군(寧城君)은 세상에 드문 영웅일세. 다섯 임금을 두루 섬기었으니, 현명하고 융성(隆盛)한 시대를 만남일세. 대각(臺閣)의 관직을 두루 겪으면서 이름 드날리어 금관자(金貫子)·옥관자(玉貫子)의 벼슬에까지 올랐네. 학문(學問)이 매우 깊고 문장이 높이 뛰어났으니, 위로는 굴원(屈原 초(楚)나라의 대부(大夫))과 송옥(宋玉 굴원의 제자로, 시인임.)을 따르고 아래로는 사마 천(司馬遷)과 반고(班固)를 벗했네. 소자첨(蘇子瞻)과 구양 수(歐陽 修)와는 백중(伯仲)의 사이였네. 경연청(經筵廳)에서 논변(論辯) 사려(思慮)할 때는 하루 세 번씩 나아가서 접견하였네. 요·순(堯舜)과 같으신 임금을 모시고 직·설(稷卨 요와 순의 현신(賢臣))과 같은 마음을 먹었네. 정승의 자리에 두 번 들어갔으며, 공신록(功臣錄)에 세 번 기록되었네. 그 재주를 크게 펼쳐 설시(設施)하니, 나라를 다스리고 만물을 길러내어 골고루 자라게 하였네. 오직 덕(德)이 왕성하고 공(功)이 성대하였는데, 어찌하여 철인(哲人)이 쉽게 병들며 무엇 때문에 어진 이가 장수(長壽)하지 못하는가? 하늘이 그를 갑자기 뺏아 가매 거울 하나가 없어졌다 하겠네. 비록 없어졌다고는 하나 남은 것은 오래 가리. 하늘이 글을 없애고자 아니하매 전형(典刑)이 갖추어져 남았으니, 이 정민(貞珉 비석)이 새겨서 뒷 자손에게 밝게 보이노라.

太虛亭 墓誌文

姜希孟撰

공의 휘(諱)는 항(恒)이요, 자(字)는 정보(貞父)이며, 삭녕인(朔寧人)이다. 징사랑(徵仕郎) 홍조서승(洪造署丞) 최충(崔忠)이 호조 전서(戶曹典書) 최윤문(崔潤文)을 낳고, 최윤문이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최사유(崔士柔)를 낳으니, 곧 공(公)의 부(父)·조(祖)·증조의 3세(三世)이다. 공의 공훈으로 추증(追贈)되어 서승(署丞 최충)은 병조 판서가 되고, 전서(典書 최윤문)는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으며, 사예(司禮藝 최사유)는 영의정이 되어 모두 공신의 호를 받았다. 사예가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오혁충(吳奕忠)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영락(永樂 명(明)나라 성조(成祖)의 연호) 기축년(己丑年 1409년 태종 9년) 12월 임진일(壬辰日)에 공을 낳았다. 공은 나면서 총명(聰明)과 지식(智識)이 세상에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무리에서 뛰어나 학업(學業)이 날마다 진보하여 화려한 소문이 더욱 퍼졌으며, 문사(文詞)의 근원이 뛰어나게 드러나 크게 제배(儕輩)들이 추앙하여 복종하였다. 선덕(宣德 명(明)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갑인년(甲寅年 1434년 세종 16년)에 세종께서 성균관에 임어하여 대책(對策)으로 선비를 뽑으실 때 공의 대책이 잘 되었다고 하여 공을 장원으로 뽑아서 특별히 선무랑(宣務郎)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지제교 겸 경연 사경(知製敎兼經筵司經)을 제수하여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를 편수하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지재(止齋) 권 선생(權先生 권제(權踶))이 공을 소중히 여겨 누님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는데, 매양 공의 저술(著述)을 보고 감탄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장의 기습(氣習)이 무너져 쓰러지는데, 능히 발양(發揚)하여 떨쳐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수찬 겸 춘추관 기사관(修撰兼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겨져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는 데 참여했다. 무오년(戊午年 1438년 세종 20년)에 문종(文宗)께서 동궁으로 있으면서 학문을 크게 성취하였는데, 세종께서 당대의 명유(名儒)를 선발하여 궁관(宮官)에 임명하였을 때 공이 첫째로 뽑히어 부교리(副校理)로서 세자 좌사경(世子左司經)을 겸직했다. 계해년(癸亥年 1443년 세종 25년)에 교리로 옮겨져 예문관 응교(藝文官應敎)를 겸직했다.

세종께서 언문(諺文)을 창제(創制)하시고 대궐 안에 개국(開局)하여 친히 명유(名儒) 8원(員)을 가려서 ≪훈민정음(訓民正音)≫과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의 책을 맡아서 짓게 하였는데, 지금 영상(領相)으로 있는 고령(高靈) 신공(申公 신숙주(申叔舟))과 공이 실로 예

지(睿旨)를 받아서 찬정(贊定)한 바가 많았으므로, 세종께서 깊이 권주(眷注 은총을 베풂)를 가하고 몇 해가 되지 않아서 직전(直殿)으로 발탁해 제배(除拜)하였다. 정묘년(丁卯年 1447년 세종 29년) 가을 복시(覆試)에서 제5명(第五名)으로 합격하여, 품계를 건너뛰어 봉정 대부(奉正大夫) 수직제학 겸 세자 보덕(守直提學兼世子輔德)에 제수되었다. 당시 문종께서 〈세자로서〉 서사(庶事)를 감무(監撫)하고 있었는데, 서연관(書筵官)으로 기밀(機密)을 관장하게 하니, 공이 마음속에 생각한 바를 계도(啓導)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게 하였는데, 정밀하고 합당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경오년(庚午年 1450년 문종 즉위년)에 문종께서 즉위하자 여러 번 옮겨져 사간원 좌사간(司諫院 左司諫)이 되고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이르렀으며, 신미년(辛未年 1451년 문종 원년)에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에 올랐다. 공이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은지 18년 동안에 무릇 강설(講說)·사명(詞命)과 편마(編摩)를 모두 다 주관하였는데, 온 나라에서 모두 흡연(翕然)히 대수(大手)라고 칭찬했다. 임신년(壬申年 1452년 문종 2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가 곧 좌부승지로 옮겼는데, 문종께서 승하하시자 국세(國勢)가 의심이 일어나 위태롭게 되자, 공이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면서 주선(周旋)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계유년(癸酉年 1453년 단종 원년) 겨울에 세조께서 기미(幾微)에 밝아 위난(危難)을 평정할 때 공께서 마침 궁중에서 직숙(直宿)을 하고 있었기에 협찬(協贊)함이 실로 많았으므로 특별히 승급하여 도승지가 되었고, 얼마 뒤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衛士協贊靖難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갑술년(甲戌年 1454년 단종 2년)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에 제수되고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으며, 을해년(乙亥年 1455년 단종 3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옮겼다. 이 때 세조께서 섭정(攝政)하셨고 역당(逆黨)의 남은 무리들은 아직 다 제거되지 아니하였는데, 공이 수십 가지 일을 조목별로 진달하여 모두 윤가(允可)를 받았다. 이해 6월에 세조께서 즉위하자, 좌익 공신(左翼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가을에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정축년(丁丑年 1457년 세조 3년)에 복(服)을 마치자, 가정 대부(嘉靖大夫) 호조 참판을 제배하였다가 이윽고 이조(吏曹)로 옮겼다. 무인년(戊寅年 1458년 세조 4년)에 자헌 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올라 인순부윤(仁順府尹)이 되고 공조와 형조 양조(兩曹)의 판서를 지냈다. 이때 예종(睿宗)이 동궁(東宮)으로 있었는데, 세조께서 하교(下敎)하기를, "세자를 보양(輔養)하는 데는 노성(老成)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에게 명하여 빈객(賓客)이 되게 하였다. 이해 겨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세조께서 바야흐로 ≪경국대전≫을 편찬하려고 이듬해에 공에게 기복(起復)을 명했다. 공이 글을 세 번이나 올려 굳이 사양하자, 어서(御書)로 그 올린 글의 끝에 비답(批答)을 쓰기를, "일의 중대함은 나라에서 모두 말하는 형편이고 경의 재주는 나만 홀로 아는 것이니, 오로지 한 몸만을 위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바로 만세(萬世)

에 너리 이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므로, 공이 마지못하여 부름에 따라 나아가매, 지중추원사 겸 예문관 대제학(知中樞院事兼藝文館大提學)과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제수하고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품계를 올려 주었다. 세조께서 친히 훈사(訓辭)를 지어 예종에게 주었으며, 또 병장설(兵將說)을 지어 제장(諸將)을 교육하였는데, 모두 공에게 명하여 주해(注解)하게 하므로, 공이 깊이 임금이 지은 글을 연구하여 부연해 설명하고 더 보충하며 글의 뜻을 논단(論斷)하여 조리가 밝게 잘 알도록 하여서 모두 선유(先儒)의 말과 부합되게 하니, 임금께서 매우 칭찬하며 기뻐하였다. 신사년(辛巳年 1461년 세조 7년)에 이조판서로 옮기고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품계를 올려 주었으며, 얼마 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옮겼다. 계미년(癸未年 1463년 세조 9년)에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임명되어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겸했다가 좌찬성으로 옮겼다. 세조께서 숙유(宿儒)들에게 나누어 명하여 사서 오경(四書五經)을 강론(講論)하게 하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증거로 하여 구결(口訣)을 참작해 정하게 하였으며, 또 문유(文儒)들을 불러 모아서 동일하지 않는 것을 분변하게 한 다음에 임금께서 친히 예재(睿裁)를 가하였는데, 공이 좌우에 있으면서 항상 고문(顧問)을 받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응대(應對)함이 소리에 메아리가 따르듯 빠르므로, 임금께서 열심히 들으시며 싫증내지 아니하고 좌우에게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영성군(寧城君)은 참으로 천재(天才)로다." 하였다.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 12년)에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라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하게 하자, 공이 사양하기를, "군사에 관한 기무(機務)는 신과 같이 어둡고 쓸모없는 선비가 감당할 것이 못되니, 그 책임에서 풀어 줄 것을 바랍니다." 하면서 말이 매우 간절했으나, 임금께서는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 뒤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로 품계를 올려 주었다. 정해년(丁亥年 1467년 세조 13년)에 대광보국 의정부 우의정(大匡輔國議政府右議政)에 탁배(擢拜)되었다가 5월에 좌의정으로 옮기고, 9월에 영의정에 올랐는데, 여러 번 '관작이 성만(盛滿)하다'면서 사직하였으나, 12월에 다시 영성군에 봉해졌으며, 무자년(戊子年 1468년 예종 즉위년)에 예종께서 즉위하자 영경연사(領經筵事)를 더했다 이듬해 기축년(己丑年 1469년 성종 즉위년)에 우리 주상 전하께서 즉위하자 날마다 경연(經筵)에 임어하시어 공에게 명하여 그대로 영경연사를 삼고는, 여러 대를 섬긴 유학(儒學)의 종사(宗師)라 하여 매우 존경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470년 성종 원년)에 부원군(府院君)으로 고쳐서 봉하고, 신묘년(辛卯年 1471년 성종 2년)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의 호를 하사하였으며, 겨울 12월에 다시 정승이 되어 영경연 감춘추관사(領經筵監春秋館事)를 겸하고서 세조와 예종 양조(兩朝)의 실록(實錄)을 찬수하여 올리니, 임금께서 그 공(功)을 가상(嘉尙)하게 여기시어 안마(鞍馬)를 하사하였다. 계사년(癸巳年 1473년 성종 4년) 여름에 큰 홍수가 나자 공은 '음양(陰陽)이 절

제를 잃은 것은 그 책임이 삼공(三公)에게 있다'고 하여 글을 올려 사직을 청원하였으나, 임금께서 윤허하지 않았다. 갑오년(甲午年 1474년 성종 5년) 4월에 공에게 가벼운 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혜 왕후(恭惠王后 성종비 한씨(韓氏))의 초상(初喪)을 당하여 양사(襄事 상사(喪事))가 매우 급하였으므로, 임오일(壬午日)에 공이 병을 참고 견디며 거가(車駕)를 명하여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매우 병이 위독해지자, 임금께서 연달아 내의(內醫)를 보내어 진맥(診脈)하여 치료하게 했으나 백약(百藥)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이튿날 졸(卒)하니, 향년(享年)이 66세였다. 임금께서 크게 슬퍼하여 내신(內臣)을 보내어 조문하고, 또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위문하였으며, 예관(禮官)에게는 제전(祭奠)과 부의(賻儀)를 전례에 따르게 하되, 미·두(米豆)와 지·포(紙布)를 약간 더 하사하고, 관(官)에게 장사(葬事)를 돕게 하였다. 이해 모월(某月)에 경기(京畿) 모읍(某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성품이 겸손하며 간이(簡易)하고 고요하며 단정하고 개결(介潔)하여 번화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 처신함에 있어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평상시에 비록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라도 온종일 의관을 정돈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조금도 게으른 모습이 없었고, 공사(公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근심하기를 내집과 같이 하였다. 두 번 정승이 되었으나 정무(政務)가 관대하여 고치어 새롭게 하기를 즐기지 아니했다. 사람들과 말할 때는 항상 먼저 겸손함을 보이고 스스로를 겉에 드러내지 아니했으며, 또 모나게 자기 주장을 세워 스스로 다르게 하지 아니했으나, 조정 논의(朝廷論議)에 있어서 대사를 결정할 때는 확고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청백(淸白)하여 뇌물로 청탁하는 일이 행해지지 않았고 성색(聲色)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산업(産業)을 일삼지 아니했다. 집안일은 하나같이 부인에게 맡겨 두고 털끝만큼도 간섭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했다. 친척은 인(仁)으로 대접하고 아랫 사람은 공순함으로 접했으며, 일을 당해서는 항상 세 번 생각하여 처리했다. 조정에 선 지 40년이 되었으나 한번도 탄핵(彈劾)을 받지 않았으며, 등제(登第)하면서부터 정승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하루도 외직으로 나간 일이 없었다. 개연(慨然)히 사도(斯道)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가 후학(後學)들을 권장하여 이끌어 올렸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스스로 구성하는 솜씨를 내어서 크게 뜻을 방출하여 펴매, 내용이 웅호(雄豪)하고 풍부하여 장강(長江)과 대하(大河)처럼 형세가 그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더욱 변려문(駢儷文)에 능하여 조정의 사대(事大) 표·전문(表箋文)이나 고문 대책(高文大冊)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화인(華人)들이 항상 우리 나라의 표사(表詞)가 정묘(精妙)하다고 칭찬한 것은 모두 공이 저술한 것이다. 성상께서 바야흐로 중임을 맡겨 선치(善治)를 도모하려 했는데, 하늘이 억지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니, 애통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공이 달천 부원군(達川府院君) 서미성(徐彌性)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2남과 4녀를 낳으니, 2남 중 맏이는 최영린(崔永潾)으로 임오년(壬午年 1462년 세조 8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 12년) 모인방(某人榜)에 급제하여 지금 형조 참의(刑曹參議)가 되었고, 둘째는 최영호(崔永灝)로 어모장군 행사과(禦侮將軍行司果)가 되었다. 4녀 중 맏이는 어모 장군 행사맹(禦侮將軍行司猛) 정함(鄭涵)에게 출가했고, 둘째는 보공 장군 행사맹(保功將軍行司猛) 문간(文簡)에게 출가했으며, 셋째는 중훈 대부(中訓大夫) 장례원 사의(掌隷院司儀) 이균(李鈞)에게 출가했고, 넷째는 선교랑 행사직서 참봉(宣敎郎行社稷署參奉) 신수(申銖)에게 출가했다. 참의(參義 최영린)는 대호군(大護軍) 이효림(李孝林)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으니 최수영(崔秀英)이요, 관찰사(觀察使) 박건순(朴健順)의 딸을 후취(後娶)로 맞아들여 3남을 낳으니 최수호(崔秀豪)와 최수웅(崔秀雄)과 최수걸(崔秀傑)이다. 사과(司果 최영호)는 판서 정효상(鄭孝常)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다. 정 사맹(鄭司猛 정함)은 1남 1녀를 낳았고, 문 사맹(文司猛 문간)은 2남 1녀를 낳았으며, 이 사의(李司議 이균)는 1녀를 낳았고, 신 참봉(申參奉 신수)은 1남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장차 장사를 지내려는 달에 참의가 나에게 묘석(墓石)에 쓸 지문(誌文)을 청하였는데, 나는 공에게서 치우치게 한결같이 돌보아 주는 은혜를 입어서, 무릇 문자를 교열하고 사필(史筆)을 잡을 때에 일찍이 더불어 함께 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더구나 또 태상시(太常寺)에 함께 있을 때에는 외람되게 말의(末意 자신의 천박한 것의 겸칭(謙稱))를 올리어 허가해 줌을 많이 받았다. 상종(相從)한 지가 30년이 가까우니, 지기(知己)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공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공을 사제(私第)에서 뵈었을 때 공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태연하게 하였는데, 아! 밤과 새벽 사이에 어찌 유명(幽明)을 문득 달리하게 될 줄 뜻하였으랴? 공의 풍부한 공덕과 위대한 업적이 국승(國乘 국사(國史))에 있는데 어찌 너저분하게 쓸데없는 말이 필요하겠는가? 대략 세계(世系)와 벼슬살이한 순서와 자손 남녀의 수를 서술하여 묘도(墓道)에 묻고 겸하여 비통한 생각을 펴서 나타내노라.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이 짓다.

태 허 정 집 서 문

太虛亭集 序文

徐 居 正 撰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어서도 썩지 않고 영원히 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덕(德)을 세우는 것과 공(功)을 세우는 것과 언론[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릇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기필하기가 어려운 바이거니와, 언론을 세우는 것 또한 어찌 쉽다고 하겠는가? 육경(六經)[1]에 있어서는 내가 결점을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추 부자(鄒夫子(孟子 맹자))께서 이미 하세(下世)하시매 언론을 세우는 사람이 적었는데, 서한(西漢) 때에 이르러 동강도(董江都 董仲舒(동중서))와 가태부(賈太傅 賈誼 (가의))가 고문(古文)을 주창(主唱)하였고, 사마 천(司馬 遷)과 반고(班固)가 계승하였으며, 뒤에 양웅(楊雄)씨·유향(劉向)씨와 〈수(隋)나라의〉 왕통(王通)씨가 나와서 작자(作者)가 서로 이어졌다. 당(唐)나라 때에는 한이부(韓吏部)(韓愈 한유))·유 유주(柳柳州(柳宗元 유종원))·두소릉(杜少陵(杜甫 두보))·이 적선(李謫仙(李白 이백))이 있었고, 송(宋)나라 때에는 구양 수(歐陽 修)·왕안석(王安石)·황정견(黃庭堅)·소식(蘇軾)이 있었으며, 원(元)나라 때에는 양사홍(陽士弘)·우집(虞集)·게해사(揭奚斯)·범형(范椁)이 있었는데, 모두 삼광(三光(日·月과 星辰))과 오악(五嶽)[2]의 정수(精粹)하고 영명(英明)한 기(氣)를 받아 문장을 널리 펴서 웅위(雄偉)함이 한 시대를 덮고 이름이 백대(百代)에 드리워졌으니, 비록 썩지 않고 영원히 전했다고 이르더라도 옳을 것이다. 영성(寧城) 최선생(崔先生 영성 부원군 최항)은 일찍부터 큰 뜻을 가지고 많은 서적을 널리 연구하여 정숙(精熟)하게 함양(涵養)했으므로 겉으로 나타나 문장으로 된 것이 또한 더욱 오묘(奧妙)하여 명성(名聲)이 이미 제배(諸輩) 가운데 빼어났었다. 선덕(宣德 명(明)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갑인년(甲寅年 1434년 세종 16년)에 세종께서 성균관(成均館)에 임어하시어 대책(對策)으로 선비를 뽑으실 때에 선생이 화려하게 장원 급제(壯元及第)를 하셨다. 발탁되어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가서 경연[硬幄]에 모시고 가까이서 지우(知遇)를 받으며 난파(鑾坡 집현전을 지칭함)에 있은 지 17년 동안에 궁중(宮中)에 보관된 서적을 다 열람하고 고금(古今)의 일을 해박하게 통하여 문장이 크게 집성(集成)되어 당시에 독보적(獨步的)인 존재였었다.

---

1) **육경**(六經) :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춘추(春秋)·악기(樂記)를 이름.
2) **오악**(五嶽) : 중국의 다섯 개의 명산(名山)인 태산(泰山)·화산(華山)·형산(衡山)·항산(恒山)·숭산(嵩山)임.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권주(眷注(은총을 베풂)) 또한 융성하여 간대부(諫大夫)가 되고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 항상 관직(館職)을 겸임하였고, 우리 세조(世祖)를 돕기에 이르러 두 차례 훈맹(勳盟)에 참여하여 벼슬이 태정(台鼎(정승))의 높음에 이르렀으며, 바로 이 학문의 운세(運勢)가 크게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스스로 사문(斯文)을 제작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오경 사서(五經四書)의 구결(口訣)과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책은 모두 그 가 찬정(撰定)한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임어하시게 되자 또 훈열(勳烈)에 책봉되었으며, 재차 정승이 되어 좌우에서 찬양(贊襄)하여 문교(文敎)를 크게 넓혔다.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찬수(撰修)할 때는 모두 총재(總裁)를 하였고 여러 번 문위(文闈(科場(과장))를 맡아서 인재(人材)를 얻은 것이 또한 성대하였으며, 벼슬은 더욱 높아지고 문명(文名)은 더욱 대단해졌는데, 무릇 조정의 웅문(雄文)·대책(大冊)과 사대(事大) 표전문(表箋文)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그 외에 공경(公卿)의 비갈(碑碣)과 관서(官署)·사원(寺院)의 공(功)을 기록하고 사적을 등재하는 일이나, 또는 한 때 사방으로 문자(文字)를 구하는 사람이 공(公)의 한마디 말이나 짤막한 문자를 얻게 되면 아름드리 구슬[拱璧]을 얻은 것처럼 진보(珍寶)로 여겼다. 서거정(徐居正)은 선생의 처제(妻弟)이다. 선생께서 처음 우리 집에 장가 왔을 때는 서거정의 나이 바야흐로 학문에 뜻을 두었을 때라 친히 가르침을 받아 서여(緖餘)를 얻어들었고, 그 뒤 10년에 또한 과거에 등제(登第)하여 뽑혀서 외람되게도 여러 선생(先生)의 뒤에 있으면서 문묵(文墨)의 헛된 이름을 훔쳐 가졌었는데, 선생께서 정승이 되자 외람되게 부재(不才)한 이 사람에게 문형(文衡)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헤아려 보면 분수(分數)에 넘치는 일로 모두 선생께서 주신 것이다. 선생께서는 평생에 사장(詞章)을 쓸데없는 헛소리로 여기어 비록 저술(著述)은 있었으나 그 초고(草藁)를 남겨 둔 것이 드물었는데,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시매, 사자(嗣子) 최영린(崔永磷)과 최영호(崔永灝)가 수집하기에 힘써서 시(詩)와 문(文) 약간편(若干篇)을 얻었으나 미처 분류하여 모으지 못하고 서로 이어서 사망하였다. 서거정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선생의 문장 같은 것은 민멸(泯滅)하여 전함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되겠기로, 삼가 정수(精粹)만 모아서 다음과 같이 성편(成篇)하고 그 첫머리에 붙인 서문(序文)을 쓰려고 하매, 선생의 생존하셨을 때와 세상을 떠나신 일이 몹시 생각나서 슬픔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한마디 문사(文辭)인들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에서 선생의 글을 평론한 것을 들어 보니, "선생은 천분(天分)이 지극히 높고 학력(學力)이 또한 극치에 도달하여 바야흐로 뜻에 맞게만 되면 붓을 놀려 문장을 이루어서, 호탕하기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돛단배를 내몰아 순류(順流)를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고, 번쩍 이기는 요뇨(驍橈(준마(駿馬))가 나는 듯이 달려서 구름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으며, 빛나기는 간장 막야(干將 莫耶)[3]와 같고 칼날의 빛을 다 드

러내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체재가 힘이 있고 원숙하며 기상이 높고 씩씩하여 심원(深遠)하게 생각하는 연원(淵源)이 비록 풍부하지만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비록 핵실하여 논하였지만 억측하여 말하지 않았으며, 비록 기이하지만 불끈 솟아나지 아니한데다가 더욱 변려문(駢儷文)에 정통하여 깊이 육 선공(陸宣公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의 문신 육지(陸贄))의 문법을 얻었으니, 참으로 가히 기위(奇偉)하고 범상(凡常)치 않은 재주라고 할 것이다. 그 언론을 세운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전할 것인데, 또 어찌 지난날의 몇몇 군자(君子)들에게 양보하겠는가? 문득 듣건대, 덕(德)을 세우는 것을 학(學)이라 하고 언론을 세우는 것을 문(文)이라 이르나니, 말을 가지고 문장을 이루는 것도 또한 사문(斯文)에 공이 있는 것이다. 덕과 공과 말 세가지는 서로 인연하여 하나가 될 따름이니, 어찌 학문(學問)을 극진히 한 공이 아니면 작자(作者)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이겠는가? 지금 선생의 글에 서문을 쓰면서 이러한 것을 아울러 논(論)하노니, 대아 군자(大雅君子)께서는 반드시 취사(取捨)함이 있을 것이다.

선생의 휘(諱)는 항(恒)이요, 자(字)는 정보(貞父)요, 태허정은 그의 호(號)이다.

용집(龍集 歲次(세차)) 병오년(丙午年 1486년 성종 17년) 청화절(淸和節 음력 4월을 지칭함)에 사가 일로(四佳逸老) 서거정(徐居正) 강중(剛中 서거정의 자(字))은 서문(序文)을 쓰다.

훈민정음 창제 반포 560년 기념

전시추진위원회

위 원 장
최능행 011.763.1277
부위원장
최성오 018.247.2133
부위원장
최성교 011.493.2424

